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행하는 것은 분열과 불화와 갈등만을 깨닫고 평안과 화평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월 26일 (토) 제 1715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미국인들 분열 아닌 통합 원한다!

### 모어인커먼, “정치적 양극화 아닌 공동 가치 추구 위해 노력” 설문 결과 보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 중 인종, 종교, 성 정체성, 출생지 등에 따라 ‘그들’을 배척하는 종족주의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개념을 확장해서 모두에 포용적인 미국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이 기성정치에 대한 변화의 상징이고 새로운 문화의 도래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치는 증오, 차별, 반목, 독설로 가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극우의 강성이 집권하는 경우가 이어졌다.

그 사이 미국은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확대돼 이보다도 양극화가 심해진 시절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극단적 양극화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44% 가운데 31%가 ‘정말 많이 지지한다’는 반면, 지지하지 않는 55% 가운데 47%가 ‘정말 많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출구조사 결과로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적당히 지지하고 적

당히 반대하는 중간층이 매우 적고 양극단에 미국인이 대단히 많이 몰려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과는 달리,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정치적 양극화라는 체계에 동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쟁점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미국을 보다 미국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작년 10월, 비영리단체 모어인커먼(More in Common)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국민 4분의 3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사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Hidden Tribes of America: A year-long project of More in Common launched in October 2018).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은 분열을 강화하기보다는 통합을 바라고 있고, 이에 맞추어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 엄마들이여, 조국을 위해 아기를 가져라!

### 뉴스위크, 중국 저출산 심각 보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은 3년 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뒤 부부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가지라고 요청하지만 좀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인구성장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던 중국이 지금은 여성과 배우자들에게 ‘국가’를 위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새로운 구호는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그런 조치를 두고 “간섭적이고 몰이해하다”는 반응을 보인다(CHINA ASKS WOMEN TO ‘HAVE CHILDREN FOR THE COUNTRY’ AFTER DECADES OF CURBING POPULATION).

## ‘한 자녀 정책’ 폐지 3년...신생아 되레 줄어 부유해진 세대 결혼지연이 출산율 감소이유

오랫동안 중국은 늘어나는 인구 덕분에 역동적인 노동력을 발판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친 인구성장을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인구고령화가 더 큰 문제가 됐다.

중국 정부는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고령화하는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부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둘째 자녀를 갖도록 유도했다.

(3면으로 계속)



## 애국심 고취 & 국가적 정체성 함양으로 ‘소진된 다수’ 변형시켜라

동 보고서는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있는 미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준다. 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으로는, 급변하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 평균 임금의 정체 그리고 불안한 고용 현실 △9/11 테러 이후 계속되고 있는 테러 위협 △소셜 미디어의 “Echo-Chamber” 효과(같은 성향 가진 사람들끼리만, 반대편 쪽 얘기는 듣기 싫으니 귀 닫은 채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고립되고 특정 성향이 강화되는 현상) △케이블 TV나 다른 미디어의 당파주의(Fox vs, CNN)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없다는 자신감의 위축 등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좌에서 우까지 정치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인종 차별·성차별·성희롱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재의 정치적, 문화적 규범이 사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 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까지,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먼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들에 대해 묻고 그리고 1)이민, 2)인종과 사회적 정의 3)성과 성별 4)종교와 극단주의라는 4개 주제 중 한 개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을 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좌파부터 우파까지 총 7개의

숨겨진 별개 그룹, 종족(tribes)으로 구성됐다.

흔히 윙(wing)이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집단은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분의 2는 좌우 분열에 지친 ‘소진된 다수(The Exhausted Majority)’가 차지했다.

(3면으로 계속)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시론 김인환 목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워싱턴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었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격 38원으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발행인 칼럼

자기애(自己愛)의 위험성(危險性)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는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사랑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사랑의 균형 잡힌 시각(視覺)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멋진 조화(調和)를 일깨워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렇다. 자신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있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 된다.

자기애(自己愛)가 삶의 출발점인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신앙을 이야기하고 교회부흥을 논(論)한다 하여도 자신의 이익(利益)이나 정서(情緒)에 닿지 않으면 결국 자기애(自己愛)가 불쌍사납게 분출(噴出)된다. 자기애(自己愛)는 교회의 현재를 어지럽히고 미래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회를 둘러 보라. 어려운 교회가 적잖이 있다. 왜 어려운가? 자기애(自己愛)로 충만(充滿)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나 허울 좋은 말로만 포장되어 있지 그 가슴 깊은 곳에는 자기애(自己愛)가 유유(悠悠)히 흐르기 때문이다.

일례(一例)로 은퇴가 임박(臨迫)했는데도 적절한 준비가 전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현안(懸案)이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다.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기애(自己愛)일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은퇴로 자신이 잊히기 싫고, 물러남으로 놓치기 싫은 그 무엇, 곧 자기애(自己愛) 여파(餘波)로 신음(呻吟)하는 교회가 한 둘이 아님은 부인할 수 없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우고 세움으로 아름다운 퇴장(退場)을 준비하였다. 모세는 떠났어도 준비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 더십 전수(傳受)의 최대수혜자(最大受惠者) 여호수아는 누구를 키우고 세웠는가? 유심(留心)히 성경을 살펴보아도 딱히 거론(擧論)할 인물은 없다. 여호수아를 이을 준비된 후계자 부재로 이스라엘이 암흑시대(暗黒時代)라 일컫는 사사시대(士師時代)를 맞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隨順)이었다. 누구도 쉽게 범접(犯接)할 수 없는 큰 리더인 여호수아, 하지만 그가 후계자를 키우는데 모세의 절반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 때문이 아닐까?

일전(日前)에 준비된 은퇴 후, 떠난 교회와 무관(無關)하게 자신의 새로운 사역을 힘 있게 펼쳐 가시는 목사님을 보았다. 은퇴하시기 7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 후임자를 염두(念頭)에 두시고 관찰과 침묵과 기도도 많은 시간을 보내신 후, 당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으셨고, 공동의회에 그 안건을 내놓아 통과시키셨다고 하셨다. 하나님과 교회 사랑이 자기애(自己愛)보다 크셨음이 분명하다.

자기애(自己愛)는 필요하지만, 그 위험성(危險性)은 분명히 있고, 크다. 자기애(自己愛)를 잘 다룬다면 큰 기쁨이,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 큰 고통이 따른다. 자기를 버림으로 진정한 자기애(自己愛)를 구현(具顯)할 수 있다.

목회자도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처치리더스.컴, 찰스 스톤 목사가 전하는 은혜로운 거절 방법 소개

목회자로서 필자(찰스 스톤, Charles Stone)는 일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이런 요구들이 전적으로 필자의 선택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요구되는 일을 목사가 해줄 수 있는지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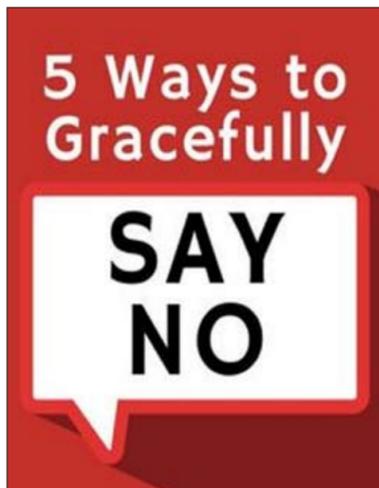
청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만나기를 바란다. 많은 경우, 'No'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속 깊숙이 알고 있지만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종종 'Yes'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가 정중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5 Ways to Gracefully Say No").

1. 'No'란 단어를 쓰지 않고 'No'하기

어떤 상황에서는 거절이라는 말이 너무 강경하게 들릴 수도 있다. 때때로 이와 비슷한 다른 어구를 써서 대답을 순화시키지만, 여전히 거절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정말 일정이 지금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여력이 안 되네요. 하지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되네요. 다음 주나 아니면 시간대가 맞는 때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것을 알고 있다. 이럴 경우, 단호하지만 정중한 거절이 적합하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편지 없는 감정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락하면 후회의 감정은 훨씬 더 오래가고, 지금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또 있을

관한 책을 쓰기 위해서 몇 차례 독창적인 인물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피터 드러커의 대답이 흥미로워서 그대로 옮겨 본다.

“2월 14일에 쓴 친절한 편지에 정말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 동안 선생님과 선생님의 작품에 감명을 받아왔고, 상당히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독창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꾸준히 일하

거절 의미 전달할 수 있는 단어 사용 몇초간 생각, 확실치 않은 대답 미루기 전자우편으로 보내기, 거절 이유 설명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될 거 같아요.”

2. 대답하기 전에 몇 초간 생각해 보기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서 종종 대답을 잘못해 수락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약속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대답하기 전에 몇 초간 잠시 멈추는 것을 배우야 한다. 거절이든 승낙이든 상관없이, 이 잠깐의 정지가 대답을 다시 구성하는 시간을 마련해줄 것이다. 또한 승낙한다면 잠깐의 정지가 포기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도 줄 수 있다.

3. 솔직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실치 않으면 대답을 미루기

가끔 질문에 논리가 있어서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더 가져야 하는 때도 있다. 이럴 경우, 지금은 대답할 수 없지만 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정말 거절하게 되면,

찬성과 반대를 고려해 보고 정중한 거절의 틀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만약 상사가 다른 중요한 계획을 미루게 해야 하는 일을 요청한다면, 상황과 수락하고 싶은 마음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수락할 수 있도록 현재 약속의 우선사항을 어떻게 다시 계획할지에 대해 충고해 달라고 한다.

4. 요청할 때 전자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기

누군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게 해서,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지워 거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필자는 종종 이들에게 전자 우편을 써 달라고 한다. 종종 사람들은 전자 우편으로 안 보내는데, 이럴 때는 거절을 못하게 된다.

5. 단순히 그리고 친절하게 'No'라고 말하고 가능하면 이유도 설명하기

때로 바로 거절해야 한다는

지라도,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얼마 전에 그렉 맥커운(Greg McKeown)의 책(Essentialism: The Disciplined Pursuit of Less)을 읽었다. 강력 추천한다. 거절에 대하여 쓴 장에서, 그렉 맥커운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예전에 어떻게 거절했는지 쓰고 있다. 정중히 거절하는 아주 좋은 예이다. 여기 인용해 보겠다.

“필자의 견해에서 현대 경영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한 정중히 거절하는 기술의 대가였다. ‘몰임’에 대한 연구로 가장 잘 알려진 헝가리 교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가 독창성에

는 중입니다. 저는 독창성에 대해 믿지 않지만, 생산성의 비밀 중 하나는 선생님 같은 분의 방문을 모두 처리하는 엄청난 쓰레기통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제가 뻔뻔스럽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경험상 생산성은 다른 사람의 작품에 도움이 되는 일을 어떤 것인지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이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잘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진정한 본질주의자 피터 드러커는 “사람들이 거절할 때 효율적이다”라고 믿었다.

정중하게 'No'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통찰력을 배웠는가?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초교과 교회로써 지난48년동안 휴스턴 한인지역 사회에서 보수전통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힘써온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1. 정규목사교육과정 (M. Div.)을 이수하신분
2. 55세 미만
3. 미시민권자, 영주권자이시거나또는미국에합법적으로체류하고계신분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분

- 제출서류 1. 이력서및가족소개서
2. 목회비전및신앙고백서(3 Page 미만)
3. 최근설교2회분 동영상 또는CD/DVD/USB
4. 목회안수 증명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6. 추천서(2인) 및 조회처 List (최소 3곳 기재)

기타사항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심사후, 청빙후보자에게 개별통지 드립니다.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만받습니다. (전화문의사절)
-봉투 겉면에 "담임목사 청빙서류 제출"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19년 2월 28일

제출처 1. 우편 2. 이메일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kcch2019@gmail.com
c/o KCCH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미성대학교 제4대 총장 초빙공고

미성대학교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 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총장을 초빙하고자 하오니 총장에 뜻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 1. 미성대학교 설립정신에 투철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며 미성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2. 미주 성결교회의 헌법과 미국 연방 교육규에 결격사유가 없는 복음주의 신앙인
3. 미주 성결교회 혹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로 안수 받은 분. 혹은 미주 성결교회 목사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Letter 2매 이내) 1부
3. 대학 발전 및 운영계획서(Letter 10매 이내) 5부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
5. 혼인관계 증명서 1부

보내실 곳

Rev. Kwang Soo Kim
3018 Hermosa Ave. La Crescenta CA 91214
문의: kwangkim82@hotmail.com

접수 마감

2019년 1월 21일(월) ~ 3월 16일(토)까지 도착 분

기타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밀봉하여 송부 요망)
2.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미성대학교 이사장 김광수 목사

### 미국인들 분열 아닌 통합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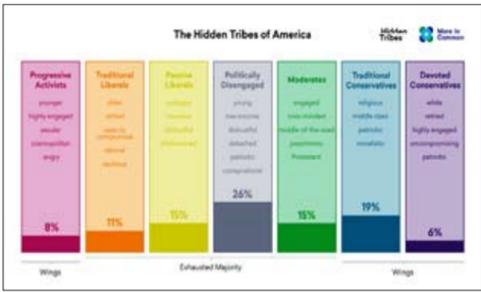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이른바 '소진된 다수'는 전통적 진보주의자들, 수동적 진보주의자들, 정치적으로 분리된 미국인들 그리고 중도 등 총 67%나 된다. 이러한 부족들은 인종·연령·성별·지역 등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신념·개인적인 책임감 등 '핵심 신념'에 따라 정의됐다.

그 결과 '소진된 다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동시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 타협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았다. 아울러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정당 모두가 오늘날의 정치 분열에 일조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번 설문 결과는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분열된 국민'과 달리 미국인 대다수가 혼합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은 분열을 강화하기보다는 통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소진된 다수' 중 72%는 소수 엘리트들과 미디어의 당파주의적 공조

를 통해 너무 과장된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당파주의를 넘어서는 보다 포용적인 미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확한 인식과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 준다.

실제로, 백인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통계를 보기도 전에, '가짜 뉴스'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선동이나 트윗을 통한 정보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또한 정치 현실에서도, 모순되게도, 보통 미국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

보기도 전에, 이민 문제는 곧바로 양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미국,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역시 '전통적 보수주의자들' 극소수와 '헌신적인 보수주의자들'과 좌익 극단(Progressive Activists)의 정치적 공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미국인 중 다수는 이러한 정치적 소모전에 말 그대로 '소진'되었다.'

그렇다면 '소진된 다수'를 어떻게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데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관건이 된다.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치적 양극화를 종식하고 타협과 화해로서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소진된 다수'가 움직이게 된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분열상은 갑자기 생

긴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출은 그런 분열상이 표출된 하나의 증상일 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막말과 기이한 성격이 기존의 분열을 악화시킨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열의 골이 훨씬 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사라질 수 있을지언정 사회적 분열의 골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 실제로 서로 대면함으로써 인간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사회적 연결은 공통의 도덕적 틀로 지탱될 때만이 효과가 있다. 하버드대학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공동의 가치가 없으면 구성원의 다양성 때문에 촘촘히 잘 짜여진 사회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공동의 가치"에 대한 갈망과 추구가 분열된 미국 사회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동 보고서는 결론을 맺는다. 즉 애국심 고취와 국가적 정체성 함양이라는 공동의 가치로 '소진된 다수'를 변형시켜야만 한다.

인구 변화 전문가인 세라 허퍼는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라를 지키고 번영하기 위해선 인구가 아주 많아야 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당시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경제성장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더욱 강해지면서 딸이 태어나면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3000만 명이 더 많은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다.

〈1면에서 계속〉  
현재 중국 정부는 출산 휴가를 늘리고 자녀 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생아 1,780만 명이 태어나 인구가 131만 명 늘었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지 2년이 지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2017년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년 대비 63만 명이 줄었다. BBC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난해부터 계속 줄어들며, 23-30세 여성의 수도 40% 감소할 전망이다.

BBC는 중국의 출산율 감소 이유 중 하나로 1979년 시행된 '한 자녀 정책' 아래서 성장한 세대가 부모보다 더 부유해져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또 경력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다수는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등 가정을 꾸리는 데 따르는 정상적인 의무를 원치 않는다.

사실 중국에서만 출산율이 감소하는 건 아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생애 중 평균 2.4명의 자녀를

낳는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아프리카 중서부의 니제르 같은 나라는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지만(합계출산율 7명 이상) 러시아·영국·일본을 포함해 세계 전체 국가의 절반 정도에서 그 수치가 2명 미만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많이 증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갈수록 사회가 인공 지능(AI)에 더 많이 의존하고, 이주자가 늘어나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2면에서 계속〉  
찰스 스톤(Charles Stone) 박사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런던(London)

에 있는 웨스트 파크(West Park) 교회의 담임 목사다. 스톤 박사는 "People Pleasing Pastors: Avoiding the Pitfalls of

Approval Motivated Leadership(IVP 2014)"과, 가장 최근 작품 "Brain-Savvy Leaders: The Science of Significant

Ministry(Abingdon, May 2015)" 등의 책 4권을 저술했다.



## 시론

### 무엇이 성공적인 삶인가?



김인환 목사  
(전 충신대학교 총장)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추구한다.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삶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월등한 업적을 이루어 다른 사람 보다 훨씬 우월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공은 인간의 삶의 가치와 추구대상의 가장 중심에 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성공의 비결을 제시한다. 그 많은 비결의 공통점은 성공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꿈을 가져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러한 의미의 성공은 교회와 목회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숫자, 재정능력, 교회의 건물들이 교회와 그 목회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성공을 이룬 목회자는 세인의 주목을 받으며 대접을 제대로 받지만 그러지 못한 목회자는 천덕꾸러기이고 교회에서 쫓겨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런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를 어찌하며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각 성도들이 성도답게 믿음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이차적이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행식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에 젖어있고,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이 교회 내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한국교회는 유난히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한다.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성공인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성공의 기준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교회나 목회자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사명을 실행하는 대항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는가일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자가 가장 칭찬받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긴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이 세운 엄청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영원토록 실패한 자의 모델이 되었고, 그의 아들 가인 역시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한 것에 대해 불순종하므로 그는 첫 살인자가 되어 인생을 실패한자가 되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엄청난 문화를 창달하면서 화려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후손 라멕의 독백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인이 받아야 할 징벌보다 77배를 더 받아야 마땅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을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였기에 인신 보기에 실패한자가 된 것 같았지만, 그는 부활 승천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단번에(once-for-all) 성취하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여 모든 천상천하의 존재들로부터 영원토록 칭송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최고 성공자의 모델이 되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가? 성공은 자신을 위해 우리들의 인생을 시작한 하나님이 인정할 때 진정한 성공이 된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1)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운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이해하자. 2)하나님이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비전을 계시하고 인간을 그의 에이전트(agent)로 삼았으나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자가 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재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그의 영원하고 새로운 에이전트로 삼은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자. 3)자신의 자의적이며 인간적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철저하게 살자.

그러면 자신을 위해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훌륭한 성공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공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9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9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9.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9)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7(Fri)-20(Mon), 2019  
2) Place: HILTON LOS ANGELES AIRPORT, USA
-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Ezekiel 36:22-31  
(2) NT Exegesis Text : Hebrews 2:1-13  
(3) Thesis Topic : Evaluate "Replace Theology"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4) Sermon Text : Matthew 28:16-2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hanrev@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9.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9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9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3r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19).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0, 2019 HILTON LOS ANGELES) through Rev. Jae Hyun Han.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ssion Address**  
Rev. Jae Hyun Han / Address: 1173 Elm Ave. Seaside, CA 93955 U.S.A.  
Cell : (831) 920-7043, E-mail : jhanrev@g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김재열 목사    서기: 권혁천 목사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올해의 인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을 선정합니다. 그 중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타임지는 주로 그 해에 사회에 가장 큰 영향(긍정적, 부정적)을 끼친 사람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합니다. 지난 2018년에는 신변에 위협을 무릅쓰

고 언론의 자유와 진실을 밝힌 언론인 '진실의 수호자들(the Guardians)'을 선정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누군지 궁금하시나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니면 올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하고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한 방탄소년단(BTS)? 모두 아닙니다. 제가 선정한 그 분은 자신의 조국에서 설자리가 없어서 일찍 은퇴를 한 후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홀로 베트남으로 떠났던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과파 리더십', '베트남에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 사람', '베트남 히딩크', '살딩크', '영적 지도자' 등등... 모두 베트남에서 생긴 그의 별명입니다. 그는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인 스키 우스컵을 축구변방 베트남에게 선사했습니다. 베트남 축구에게는 10년만의 경사였습니다. 제가 박항서 감독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같이 평범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대표팀과 프로팀 감독까지 했

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3부 리그감독으로 밀려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7번째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트남에서 '박항서 매직'의 성공을 이룬 후에도 그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나에게 기회를 준 베트남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범사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았습니다. 또한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솔선수범형 리더입니다. 경기 후 직접 어린 선수들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경기 중 부상한 선수에게 비행기 비즈니즈좌석을 양보하고, 스키컵 우승포상금 10만달러 전액을 베트남 축구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베트남국가가 울려 퍼질 때 역대 베트남 외국인 축구감독 중 유일하게 가슴에 손을 얹어 베트남에

존경을 표하는 등등... 그가 베트남 선수들과 국민들을 감동시킨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기도의 사 람입니다. 선수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시합 전에 선수들과 합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구했습니다. 휴경기 때는 경기 전에 교회에 가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중보기도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하나님께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트남행을 결정할 때도 스키컵 우승 후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 한 일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크리스천 박항서 감독! 그 분을

2018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합니다. 세상은 박항서 감독의 성공을 '박항서 매직'(magic)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매직'이 아니라 남다른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를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남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의 섬김을 삶 속에 꾸준히 실천한다면 '올해의 인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시는 것이다. 너의 일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크리스천 박항서 감독! 그 분을

# 푸/른/초/장

박신욱 목사  
(SeedUSA 미주대표)



예수님께서 청년들을 훈련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년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청년들을 불러 훈련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왜 청년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 중요할까요?

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아직도 배울 수 있는 그 때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교회는 청년들을 예수님께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음 세대와 모든 민족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 마음이 어떠하리요! 답답하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한 세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하고,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생을 드릴 수 있는 청년을 훈련해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고 믿었습니다. 천국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천국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신 예수님을 경탄했습니다. 그분의 능력 뿐 아니라, 겸손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평안과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5면으로 계속)

## 청년을 제자 삼는 교회 (마태복음 4장 18-22절)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동안 교회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의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3년간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제자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20대의 청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고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처자를 버렸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한 것을 보면 장모가 있었다는 베드로를 제외하고 회도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야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천년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가 20대에 부르심을 받아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장년에 비해 청년은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때입니다. 성경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정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훈련되지 않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제자의 자격이 있을 것 같아 보일

로 보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교회의 전통을 배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제자 삼

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음 세대와 모든 민족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 마음이 어떠하리요! 답답하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한 세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하고,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생을 드릴 수 있는 청년을 훈련해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고 믿었습니다. 천국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천국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신 예수님을 경탄했습니다. 그분의 능력 뿐 아니라, 겸손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평안과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5면으로 계속)

www.rptseast.org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2019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듯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9년 1월 25일(금) 오후6시
- 3 입학 시험 : 2019년 1월 2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 부흥회 : 2019년 1월 28일(월)-1월 30일(수) 저녁 7시45분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718)637-1470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오래전 일이다. 어린 시절부터 무척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자녀의 대학이후 진로를 두고서 한 권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법대로 가서 변호사가 되느냐 아니면 의사가 되고자 하느냐의 문제로 기억이 된다. 의대이름들을 꼭 대시는 것을 보면, 의대를 가더라도 좀 더 좋은데 가서 뭔가 의학계에 큰 빛을 남기고 싶은 욕심을 비추는 것 같았다. 이미 마음은 많이 의대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느낌이었다. 그때 목사로서 나의 대답은 상대방이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간결하고 분명하였다. “권사님, 부모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해서 이곳에서 동네의사를 만드십시오.” 이 말에 권사님의 안색이 약간 돌아서는 듯 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아니 목사님, 의사가 되려면 좀 유명한 의사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야되지 않나요?’ 구체적인 내색은 안했지만

홍수에 쓸려가듯 일식 간에 지나가는 것이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한다. 그러하기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필요하다. 삶의 가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은 하나라고 말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은 나 같은 죄인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토록 원하셨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이며,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 주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시간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얼핏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나, 노벨 의학상 정도는 가능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양보(?)하면 좋을 듯 하다. 누구에게? 왜? 노벨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공부안하면 금방이라도 숨이 막혀

선교현장을 향해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저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위해 힘쓰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노벨상 수십 개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일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그런 신앙의 단순한 상식 때문이다. 인생은 짧고 천국은 길다. 아니 영원하다. 노벨상 가지고는 천국에 상급을 쌓지 못한다. 오직 허락하신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토록 원하셨던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얼마나 구원하며 인생의 복된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에 좌우된다. 야망은 인간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끝은 자기자랑이며 자기영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신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요셉의 꿈과 같은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 때문이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종말에 일어날 제 3차 대전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는지요? 어떤 목사님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는 데요, 그것이 맞는 지요?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신학생 K

**A:** 요한계시록을 목사들이 해석하고 강해할 때 종말에 일어날 전쟁 계시에서 유브라데강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제 3차 대전으로 보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제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유브라데강 전쟁은 계시록 9장 13-19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화에 속합니다. 주로 전3년반(그리스도의 부활승천-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이 끝날 즈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며 교회가 선교를 거의 끝마칠 때 일어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무서운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침 받아야 할 택한 백성들이 아직 그 수가 차

#### 3차 대전 유브라데강 전쟁 후 적그리스도 출현 아마겟돈은 예수재림 직전의 마지막 4차 대전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발발일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그 연월일시에 사람 1/3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고 되어있습니다. 인류 1/3을 죽이는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고 세계의 열강과 강대국이 어울려 싸우는데 분명 핵전쟁이 될 것으로 봅니다(계9:18). 소위 대량 살상무기인 비대칭 무기가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는 핵무기(Nuclear), 생물학(Biological)무기, 화학(Chemical)무기는 때로 ABC무기로 불린다. 핵을 사용한 대학살에서는 무죄한 피가 많이 흘릴 것이다.”

이 전쟁이 끝난다고 이 세상 종말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며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열 뿔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됨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계13:5-6). “유브라데강 전쟁은 후3년반이 시작되는 신호일 뿐이다 성경이 확실히 가르치는 것은 재림이전에 멸망의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며 그 이전에 유브라데강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가 열리게 된다.” 바울은 살후2:3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올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세 번째 화에 속한 것으로 예수재림전 6번째 대접제양 때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국과 십분국(열뿔, 계17:2) 사이의 전쟁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제 4차 대전인 셈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19장을 보면 만왕의 왕 예수님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의 싸우는 전쟁입니다. 결국은 예수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의해 패배를 당하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생포되어 유히발에 던져지게 됩니다(계19장).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7년 대 환난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겠고 천국에서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있겠고 악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포위된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강 전쟁은 복음전파시대가 끝나는 때 일어나는 인류 제 3차 대전이요 그 전쟁의 패권을 잡은 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 끝인 예수님의 재림직전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와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 즉 제4차 대전인 셈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 동네 의사 만드세요

-자기자랑 자기 영광, 사명과 비전

만 조금 놀라는 모습이었다.

#### 성공적인 삶의 기준

1세대에 이민 와서 고생수고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쉽 없이 투자해왔고, 자식사랑이라면 물불가지지 않고 고생했던 한국부모의 마음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이었다. 혹자는, ‘아니 목사라면 비록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말을 해야지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하나? 동네의사나!’라고 대들 법도 하다. 어쩌면 말 만들기에 따라서는 저교회는 꿈도 비전도 없는 목사가 시무한다고 말할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이민생활 20년을 지나면서도 불변하는 나의 소신이다.

아직까지도 먹는 것, 사는 것, 목회하는 것이 있어서 될 세련되고 될 미국화 된, 아니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은, 한인 이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분명한 소신과 그러한 결정들이 가져온 자식과 부모사이의 상호 불만족의 결과들을 너무 많이 본 경험 때문이다. 결코 한국 2세들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다. 그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좀 더 나아가 성경의 전체적인 본질들이 신앙인의 삶의 결정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결론일 따름이다. 그 결론이 바로 ‘동네의사’인 것이다. 이쯤에서 동네의사 얘기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될 법하다.

#### 최고의 가치기준-사명

필자도 우리 한국 사람이 노벨상도 타기를 바란다. 동네에서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에 한인학생이 만점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고 어깨가 꽤 올라간다. 그러나 돌아보면, 인생이란 그리 길지 않으며 회자되는 말에 의하면 김장 김치 서른 번 담그다 보면 좋은 김장 다 지나간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인생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가? 생의 시간이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시간을 요구한다. 공부 외에는 낙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대상이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의 복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오직 그 학문 그 자체에 몰두하느라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섬길 시간도 아까운 그런 불신자들의 세계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은총 차원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그들 열심의 열매를 빌리거나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저들은 나름의 성취욕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이 주는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뭐하자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즉, 동네의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굳이 그 직업으로 한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의대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님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것이다. 좀 더 설명해보자.

####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나의 야망이 아닌 주님의 비전을 위해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이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때이다. 그 권사님의 자녀를 향한 나의 변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인생의 일들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가 있는 법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한국인 병원에 진료하는 의사도 없다. 오죽했으면 휴스턴에 있는 한인 의사더러 분점사무실이라도 내라 했을까! 그런데 이곳이 비록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2세 자녀가 부모 밑에서 새벽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의술로 힘없고 가난한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다. 교회에 맴돌삼천지교가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자식을 제대로 잘난 사람으로 키워보겠다는 야망이 지나쳐서, 성경에 말씀하시듯 나중에는 자식을 전혀 훈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부모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거기다가 자식이 신앙을 떠나버린다면, 노벨상 할애비라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국에 먼저 온 친구목사로부터 학생들이 비록 미국 땅에 살지만, 자라서는 부모에게 한국식 효도도하고 용돈도 드리고, 나중에는 이 이민교회 안에서도 한국처럼 3대,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만들기를 원한다.

####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여든이 넘는, 신앙의 연로하신 선배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자식농사 실패하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물며 그 자식의 영적인 성공을 부모로서 가장 높은 가치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은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진리인 것이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에,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 또 영원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위해 육체의 자랑과 이생의 야망을 힘써 구분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삶의 건축자가 되는 비결이 될 것이다. 소망한다.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동네의사, 동네 선생, 동네 기술자가 되어,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언제나라도 병원문 닫고 교회가 필요할 때, 선교현장으로 떠날 수 있는 동네의사,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울까!  
davidnjeon@yahoo.com

##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다음 세대에 천국복음이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수리아에, 비시디아에,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마침내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천년 교회 역사를 통해 주님은 청년들을 불러 그들의 생애를 드러 다음 세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

하게 하셨습니다. 130년 전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도 대부분 2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청년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1세 부모들의 역할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대 청년들을 부르셨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

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하여 베드로는 더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이 앞서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

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의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

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한 후에, 돌이켜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

는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귀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1세대의 사명은 청년들을 굳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젊은 청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부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이 그대로 드러났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이나 저주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

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 대한 영적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세대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까지 부흥의 불을 이어나가야 하면, 한 세대로 마감하느냐는 교회가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지정부족들(SCHEDULED TRIBES)



수천년 동안 인도는 수많은 종족집단들의 고향이 되었으며, 그 종족들은 저마다 다양한 문화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인도에는 14개의 주요 언어가 있으며 이 나라 전역에는 또다시 수백개의 다른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다. 힌두교의 복잡한 카스트 제도로 사람들은 끝도 없이 많은 사회계급, 직업군, "지정부족"으로 한층 더 많이 나뉘고 있다. 지정부족은 3천만 이상의 인도인에 이르며, 여기에는 브

힐, 곤드, 산탈족과 같은 큰 종족들도 포함된다(이들 모두는 별도의 프로파일 있다). 하지만 사회체제나 결혼관습, 언어, 종교와 또 어느 정도로는 그들의 고립된 위치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소규모의 지정부족들도 많이 있다. 주위 종족들과는 달리 지정부족들 각각은 그 자체의 사회적으로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s)"이라고도 알려진 이 부족들은 가장 하층의 힌두 카스트가 된다. 그들은 상당히 개발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정치와 경제의 주류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949년에 "불가촉"이란 것은 불법화됐고 이 부족들은 특별대우를 하

기 위해 "지정"됐다.

삶의 모습

지정부족들 많은 수가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부족들은 나라 전역에 퍼져있다. 많은 수는 격리된 지역에서 산다. 그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만 아직도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족들도 적은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부족들은 산림에서 나는 식량을 채집하고 사냥하는 일, 화전농업, 정주농, 농업 임노동, 가축 사육, 가내수공업, 기타 잡일들을 한다.

화전농업을 하는 부족들은 대개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 주변에서 산다. 그들은 그곳의 식물을 태워서 땅을 깨끗이 한 다음, 원시적인 도구로 땅을 일구고 작물을 심는다. 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새로운 땅을 선택해 다음 작물을 심는다. 곡물과 과일이 주요 작물이다. 필요하다면 산림에서

나는 채집물로 식량을 보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농장의 노동자로 고용돼 별도의 수입을 벌기도 한다. 부족들의 적은 수는 아직도 반쯤 방랑생활을 하며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밧을 놓아 잡으면서 1년에 3-4번은 돌아다닌다.

지정부족들 대부분은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살며, 대개는 지도체제가 매우 약하다. 부족 대부분은 자신의 사회단위 내의 사람들과만 결혼한다. 젊은 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많은 수는 아직도 부모의 말을 귀담아듣는다. 소수의 부족들에게는 여전히 신부의 가족에게 "신부값(bride price)"을 지불해야 하는 관습이 있다. 때때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신랑측은 충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동과 희생이 따

르기도 한다.

씨족은 가족 다음으로 중요하다. 씨족은 공동 조상의 자손들이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상이 있으면 씨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곤궁에 빠진 가정을 돕는다. 많은 씨족들은 농토와 가산을 단일 잘 활용하기 위해 종종 단일한 조직으로서 함께 일한다.

많은 부족사회에는 예술, 음악, 춤이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예술적 재능은 집안을 장식하고 옷을 짜며 또 몸치장 장신구에서 드러난다. 문신은 매우 대중적이며 문신이 드러나도록 옷을 입는다. 그들의 음악은 제한된 옥타브 내에 있다. 춤은 단지 몇몇 동작만을 갖고 반복한다. 특별한 가수나 춤꾼도 없이 모든 남녀와 아이들이 노래와 춤을 함께 한다.

신앙 지정부족들은 가장 강력한

이웃인 힌두교인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전통관습을 포기했고 이제는 힌두교 관습들을 많이 따라하며 특히 브라만(힌두교의 가장 높은 카스트인 사제와 학자)의 것을 따른다. 그들 전통종교의 몇몇 흔적들도 발견되지만 이 부족들은 주로 힌두교도로 여겨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대규모 부족들 몇몇은 선교 단체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부족들에게는 자기들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없다. 이 부족공동체 모두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 교육, 보건 분야에서 절실하다. 의료품 공급과 함께 기독교인 교사와 의료팀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법원, 주일성수 직원해고 호텔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직원을 해고한 호텔에 미국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국 언론매체 마이애미헤럴드는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다니던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리에 피에르(60·여)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호텔 측에 피에르씨에게 21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6년부터 콘래드 마이애미 호텔 주방에서 일해 오던 피에르씨는 평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회사에 요청해 2015년까지 동료와 근무를 바꾸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하지만 2015년 새로 온 주방 매니저가 그에게 일요일에도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 피에르씨는 그럴 수 없다며 1년간 매니저와 갈등을 빚어오다 2016년 3월 해고됐다. 피에르씨는 이에 불복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호텔 측은 그에게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인 피에르씨에게 적대적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원고에게 그동안의 급여 3만6000달러를 지급하고, 50만 달러의 위자료 및 21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변호사 마크 브루머씨는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선이 있지만 피에르씨는 적어도 50만 달러의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루머씨는 그러나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피에르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티 이민자인 그는 한때 선교사로 활동했다.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는 18년째 북한"

한반도에 조성되는 평화 분위기에 불구하고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권위주의와 강력한 민족주의, 과격 이슬람 세력의 확산도 기독교 박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OCF)가 16일 발표한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의하면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북한이 꼽혔다. 북한은 18년째 박해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니엘(가명) 선교사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불구하고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장기간 한인 선교사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도 박해의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에 최

대 40만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선교회는 '권위주의와 민족주의, 과격 이슬람 확산'을 기독교 박해의 이유로 지목했다.

이중만 선교회 사무총장은 "박해순위 27위인 중국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 이후 지난해부터 기독교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국가 권위주의의 전형적인 양태"라면서 "이 같은 현상은 베트남(20위)과 미얀마(18위)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민족주의의 대표적 사례로는 힌두교를 앞세운 인도(10위)를 들었다. 이 사무총장은 "인도는 인도인민당(BJP) 집권 이후 극단적 힌두주의로 흐르고 있다"면서 "인도인과 힌두교도를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이지리아(12위)는 이슬람국가(IS) 같은 극단적 이슬람 세력의 확산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나이지리아의 무장 이슬람 세력인 '보코하람'에서 분리된 무장그룹들이 기독교 여성들을 노예로 삼고 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병을 하고 있다"는 게 선교회의 설명이다.

선교회는 70여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보내온 현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해 순위를 정한다.

사우디 여성들의 탈출 이어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18세 소녀 라하프 알쿠니이 아버지의 강제결혼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위터로 구조를 신청한 끝에 캐나다 망명에 성공한 이후 또다른 사우디 여성이 트위터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우디 여성들의 잇단 탈출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사우디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들의 탈출 문제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은 17일 노주드 알-만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아버지의 통제와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4일 트위터에 아랍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동영상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나를 욕하고 때려 고통받고 있다. 현재 내가 원하는 건 도움과 지지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내 방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친구의 차를 타고 도망쳤다"며 "예전에 가출했을 때 아버지가 경찰에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소용이 없었으니 제발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알-만델은 알쿠니의 망명 성공에서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포스트 등은 전했다. 다만 알쿠니가 가족여행을 갔다가 태국에서 귀국을 거부한 끝에 국외 탈출에 성공한 알쿠니와 달리 알-만델은 사우디에서 출국하지는 못했다. 현재 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그는 "나를 무차별 구타하고 불로 지지까지 한 아버지가 검찰에 '앞으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나를 다시 집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렇지 되면 아버지를 나를 죽일 것이다"면서 "아버지가 나를 집으로 다시 보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AP뉴스는 사우디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5년 한해에만 최소 577명의 사우디 여성이 사우디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해외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

사우디 여성들의 잇단 사우디 탈출은 여성인권을 경시하는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이다. 최근 개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여성 운전을 허용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도 거의 사라진 '마흐람(남성 후견인)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문제다. 여성이 아버지·남편·아들 등의 동의 없이 결혼·여행·교육·취업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한 마흐람 제도는 서방은 물론 사우디 내 개혁적인 인권 단체들로부터 여성 인권을 가장 크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와 보수파들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남성의 의무인만큼 마흐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혁을 추구한다는 빈 살만 왕세자도 마흐람 제도의 폐지에 부정적이다. 그는 "마흐람 제도를 폐지할 경우 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회담 '윤곽' 만 합의...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8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90분 동안 면담을 가졌다. 면담 직후 백악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near the end of February)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나 "정확한 개최 시기와 장소는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면담을 "생산적(productive)"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된 비핵화'를 볼 때까지 압박과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김영철 회동'의 성과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시간표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교환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기류가 더 많이 감지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정확한 개최 시점과 장소는 뒤로 미뤄졌다. '트위터 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나 김 부위원장 면담 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북한의 2인자가 백악관을 찾았는데도 미국이 대북 압박과 제재 유지를 언급한 것도 예상치 못한 대목이다. 로이터통신은 "북·미 간 간극이 좁혀졌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면담 결과에 대해 긍정론과 회의론이 교차한다. 북·미가 교착상태를 뚫고 직접 만나 2차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라는 '비핵화 빅딜'을 놓고 북·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은 김영철 면담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어 북·미 대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마지막 기싸움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김 부위원장의 방미로 북·미가 상대방의 입장을 처음으로 직접 듣게 됐다"면서 "직접 대화의 물꼬가 터진 만큼 후속 협상에서 북·미 간 힘겨루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9일부터 시작될 북·미 실무 회담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미 실무 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김영철 회동'에서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 실무 회담과 그 이후 있을 북·미 대화에서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는지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최종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원, 북한에 워비어 가족 판결문 발송...

'북한은 오토 워비어의 가족에게 5억113만 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송달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워비어 소송 판결문을 지난 16일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에 있는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다.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이며, 배달 완료 시점은 1월 30일이다.

워비어는 평양을 관광하던 중인 2016년 1월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던 그는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섯 만에 사망했다. 워비어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결실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워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에도 미국 법원은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게 북한이 3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지만 반응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 조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전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자라한 거리 이름을 '오토 워비어 길(Otto Warmbier Way)'로 바꾸자는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67. 강천명(1883-?)

강천명은 1883년경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한성 상동감리교회의 교인이었다. 그는 1901년 5월 상동감리교회 예배당 봉헌예배에 참석했고, 윌리엄 B. 스크랜턴 선교사가 모친의 병으로 도미하게 되자 교회를 담임한 조지 H. 존스 선교사와 윌버 C. 스웨러 선교사와 교분을 가졌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던 전덕기가 속장에서 권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변신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을 배웠다.

강천명이 1904년 1월 9일에 아메리카 마루 선편으로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가 21세의 청년이었다. 그해 10월 그가 하와이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번 돈 5달러를 한성 상동감리교회 청년회에 교육사업을 위하여 기부하였다. 본 교회의 전덕기가 이 헌금을 귀하게 쓰고자 하여 차차 힘을 모아서 경성 중부 전동에 한성 상동 청년학원이라는 중학교가 공교육 건물에서 야학으로 설립되었다.

본 학원은 이후 10년간 7, 8회에 다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교육계에 많은 공적이 있었다. 개화운동의 선교자인 강화도의 이동휘와 수원의 임면수는 본 청년학원 출신이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1913년 봄 졸업생의 졸업식을 거행하고 폐교되었다고 1913년 11월에 매일신보는 전한다.

#### 솔렐한인교회

강천명은 1905년에 상항으로 이주한다. 그해 12월 16일에 상항 지방회에서 학생회가 조직되었을 때 그 토론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후 1908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했던 그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주했다. 1909년 10월 보고에 의하

면 그는 26세의 나이에 소학교 6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1912년 6월에 옥편 중학교를 졸업했다.

1910년 1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하던 강천명이 이광운, 정태은, 박호빈, 김병학, 박동규, 김금식, 이상길 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여 동포사회에 새로운 일을 연구하

면서 일반 동포의 도덕심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곳에 미순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헌금 34달러를 모금하고 이 일을 힘써 추진하는 대로 기부해줄 것을 바라는 광고를 냈다. 영어 명칭은 Collegiate Institute였다. 이 미순이 솔렐한인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 상항한인감리교회 소창 준비위원

1913년에 하와이로 갔던 강천명이 1914년 3월에 상항으로 이주하였다. 1915년에 상항한인감리교회 청년회가 교회 일반 교우가 공원이나 산상으로 유희를 계획하면서 교회 소창 준비위원을 선정할 때 임정구 전도사와 전득부와 함께 강천명을 선임했다. 그해 7월 청년회 임원 교체가 있었을 때 그가 회계국장으로 선출되어 회장 강영수를 보필했다.

그해 이대위 목사가 시무할 때 11월 추수감사절 예배에서 그는 첫 번째 순서인 기도를 담당했고, 그리고 그해 성탄절 때는 이승주와 함께 성경 낭독 순서를 맡았다. 1916년 2월 본 청년회 임원으로 인제국장이 되어 회장 홍 언을 도왔고, 그해에 적십자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1917년에 강천명은 아이다호 폴로 이주하여 콩 농사를 하였는데 그해 10월 13에 상항한인감리교회 이대위 목사의 주례로 조엘리스와 결

명은 그의 부인과 함께 북가주 맨티카로 이주한다. 그해 3월 문양목 교장이 맨티카 국어학교를 개학할 때 강 앨리스는 교사로 초빙되었다. 그달 1일에 개학식에서 강천명은 취지 설명 후 기도 순서를 맡았고, 그의 부인 강앨리스는 노래 순서를 맡았다.

1920년 10월 1일에 푸부스 감독이 미국 남감리교 한인지방회를 상항한인교회에서 소집했을 때 강천명은 맨티카한인감리교회 대표로 참석

는데 출연자가 본 교회 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연자는 변성욱, 홍정식, 방사겸, 방살로매, 이두연 부부, 염만석, 염항신, 김경보 부부 등이었다.

#### 상황

1921년에 북가주 삭도로 이주했다가 스타튼을 거쳐 1923년에 다시 상항으로 이주했다. 1928년 9월 3일 상항 부쉬 길 916번지의 미국 남감리교회 예배당에서 감독 헤이 박사의 소집으로 미국 남감리교 동양인교회 구역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강천명은 상항한인감리교회의 권사로 참석했다. 당시 상황 한인감리교회의 목사는 황사선이였다.

이날 감독 헤이 박사는 성경 몇 절을 읽은 후 일반 교역자에게 진정한 복음을 강설하였다. 우리 교역자는 반드시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그리스천사이언스와 같은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교우들에게 전파하지 말 것을 그가 역설했다. 미국은 대용품 많이 쓰는 나라가 되어 모든 것에 그 근본 물질을 버리고 다른 비슷한 물건을 대용하듯 오늘 미국 교회의 현상도 예수 성경에 대용품을 쓰는 폐단이 많으며 우리 교회에 교역자 되신 이들은 대용품을 쓰지 말고 꼭 십자가의 정신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조하였다.

1929년 10월에 강천명이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집을 두 번이나 나가는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오클랜드로 이주하였다. 그의 이혼 소송이 신한민보에 세 번이나 기사화되는 수도 가운데서도 그는 상항한인감리교회의 예배당 건축에 2달러를 헌금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

강천명은 1930년 3월 14일에 귀국했다. 불행하게도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고된 후에 근심으로 지나다가 본국 가서 가정을 이루고 지날 생각을 가지고 프래지던트 그랜트 선편으로 귀국했다. 신한민보는 "그날 따라 비는 퍼붓는 듯이 오는 고로 떠나가는 그의 심회가 더욱 비참하여서 슬픈 눈물이 또한 비 오듯 하여 일반 송별하는 친구들이 애석해하는 감이 많았었다"라고 적었다.

1931년 2월 19일에 '가옥 중수비' 명단에 강천명이 있고 2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보아 도미한 것으로 짐작되고 이혼의 아픔을 딛고 신한 기부를 멈추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이후 그의 행적을 찾지만 쉽다.

damien.sohn@gmail.com



맨티카한인감리교회 전도사

### 하와이 도착후 상동감리교회에 헌금, 청년학원 설립 후원 솔렐에 미순 설립...상항, 맨티카 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사역

했다. 그런데 그날 한국으로부터 도미한 부인 선교사를 청하여 관대하게 대접하였으니 면적이 있었던 선교사일 수 있으나 신앙심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다. 신앙심이 없으면서 야 신혼잔치를 하루 미루어 이튿날 하오 4시에 40여 명의 동포를 모시고 중국식당에서 열 리가 없지 않은가.

맨티카한인감리교회 교인, 1918년 맨티카한인감리교회 예배당 건축은 약 1,200달러가 소요되었고 이 중 300달러의 부채가 있어 여러 지방에서 헌금하였다. 그해 8월에 상항한인감리교회 교인들이 북가주 맨티카한인감리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헌금할 때 강천명은 그의 부인과 함께 각각 5달러씩 헌금하였다. 본 예배당 헌당식은 1918년 9월 22일에 있었다.

1918년 말이나 이듬해 초에 강천

했다. 당시 임정구 목사가 순회 목사로서 맨티카한인감리교회를 목회하였고, 임 목사가 방문하지 않을 때 강천명이 주일예배와 기타 목회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 2년간 전도사로 사역했을 것이다.

1919년 11월 김경보의 부인 김성심의 오랫동안 병중에 있던 중 수술을 받고 스타튼 공립병원에 입원하였으니 그가 자주 심방을 했을 것이다. 위의 김경보가 이듬해인 1920년 8월에 맨티카에서 영찬관(서양식당)을 열었는데 내외국 사람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장차 흥성할 것을 기대했으니 강천명의 기도도 한몫을 담당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1920년 12월에 강천명이 국민회 북미 지방총회 신하 맨티카 지방의 성탄 의연 수합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가 모든 금액이 15달러 50센트였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남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213)227-1400 / www.youngnak.com	<b>남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남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금-토): 오전 5:30 3월: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토요일한국교회: 오전 9:00 Tel: (562)691-0691,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2부: 오전 11:20 Tel: (714)521-2779 / facebook.com/srs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전 1:2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2부: 오전 11:20 Tel: (714)772-0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향 박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예배: 오후 1:30(유모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김호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경강좌(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장성기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8:00(토)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Tel: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기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8:00(토) 은혜서기관도전: 365일 24시간 온선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일교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ny.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오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Fwww.torre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성경도 신앙(70)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 4) 국가의 기능

그러면 국가의 기능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무엇인가? 국가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며(딤후2:2). 이것이 또한 정부의 기능이다. 사람들은 하여금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도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해낸다.

가)첫째는 소극적으로 악과 그 악이 나타나는 것을 제어함으로 정부는 그 일을 한다. 정부가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남자들이든 여

하는가? 국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인가?

국가가 마땅한 바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 평화의 질서의 삶이 주어진다. 국가는 우리를 격려하여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되도록 하며, 우리나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이다. 국가가 이런 기능을 못하면 도둑, 강도, 사기꾼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만일 교회에 오는 길에 무장 강도가 줄줄이 있다거나, 엄청난 눈이 왔는데 시에서 치우지 않고 방치된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도 없다.

국가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에, 우

다.

5) 국가를 변화시키는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국가의 성격이 변하기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국가에 복종해야 하며 국가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역할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혁명이나 모반에 참여해야 하는가? 18세기에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 순례자들은 독립전쟁에 참여했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가)영국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살았던 청교도들은 당시 성공회 정부가 운영했는데, 정부의 변화를 위해서 싸웠으며, 지기도 하고 이기고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한다. 그러나 양쪽이 다 기독교인이고, 그 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만일 법 자체가 우리에게 체제의 변화의 가능성

## 국가 마땅한 대로 역할 감당할 때 평화적 질서의 삶 주어져 사회계약은 항상 존중... 법 허락 내에서만 그 파업에 참여해야

자이든 타락했기 때문에 무법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잔인하고 비열해졌다. 그래서 법으로 그들을 통제해야만 한다.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께서 악의 결과들에 제한을 두셨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통제를 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은 오래 전에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한 선을 두시고, 악의 결과들을 제어하도록 공세들을 거두게 명하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내는가? 3-4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네가 악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그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 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처럼 소극적으로 국가는 악을 두 방면에서 제어하는데, 먼저 경고하고, 듣지 않으면 징벌하는 일을 통해서 한다.

나)둘째 적극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모든 사람들의 복락을 촉진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도록 세움 받은 것이 국가이다. 3-4절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 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우리가 선하고 합법적이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칭찬

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갈 수 있으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 사람들에게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을 느슨하게 해주었다. 러시아가 아주 절망에 빠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주 고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시기가 있었다.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가 올라왔다. 그 보고는 당시 소련의 인민위원들의 관찰 결과 나온 것이다.

“공장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믿을만한 일꾼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국가가 하라는 명령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공산정권의 수뇌인 스탈린의 칭찬을 많이 받았으며, 그는 그리스도들을 압박하는 법을 완화하였다.

3절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당연하게 법에 순종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격려를 받았던 것이다. 국가가 악을 제압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의 또 다른 국면은 ‘칼’의 문제라고 할 수 있

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활용하여 그 일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법이 우리에게 총선거를 치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정부를 바꾸도록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옳은 일이다.

나)노동조합은 어떤가? 오늘날 사람들의 일하는 체제가 고용주와 노조와 정부의 협력이라 되어지는 것이고, 존재하는 권세들이 바로 그것을 법으로 선언하고 정해 놓았다면, 그리스도인도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노조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노조들은 사회를 운영하고 현재 우리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가? 만일 그 파업이 합법적이고 그 파업으로 더 나은 조건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만족감이 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파업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사회계약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법이 그 계약을 제거하도록 허락하고 더 나은 것으로 바꾸기를 시도하도록 허락한다면 그런 법적인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계약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나, 항상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업은 마지막 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파업에 참여해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여대장부 드보라

이스라엘에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었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사4:7, 9). 에훤이 사는 동안 80년이나 태평한 세월을 누렸다. 그 정도의 전쟁의 위협이 없이 태평했다면 헤이즐링은 것은 별 이상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일어서야하고 싸워야 할 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 일을 성사시키신다.

모든 관원들, 남자들이 고통 받는 조국 따위는 아랑 곳 없어 하니, 자고로 여자들은 머리를 세는 사람 축에도 끼이지 못했던 말씀에 밝은 덕분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된다. 비록 여자일지라도 말씀을 품은 자가 주님의 중심의 뜻을 알고 스스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품은 어머니 되었다고 드보라는 노래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시대를 초월해 도대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실수 있었는가? 남자다 어느 집안이다 등의 제도에 그 사용하는 사역자를 국한하지 않으셨다. 자격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연합하는 자가 기본 자격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많은 사람이 드보라에게 나와 자문을 구한다. 물론 여자이기 직접 나서서 의견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제약도 많았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이 나설 이유는 없다. 알맞는 사람을 찾아서 서로 은사대로 팀웍만 이뤄지면 오히려 백지장도 맞들면 낱기 아니하던가! 담대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여장부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간다. 심지가 약한 바락을 격려해 힘을 얻고 합해온 바락이 손을 잡고 평범한 아낙네 야엘의 조국을 지키는 담대한 행위로 20년간이나 극악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가나안왕 야빈을 진멸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히 예만 된다. 저들은 남다른 재주도 힘도 기술도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은 그들에게 조국의 평안을 안겨주었다. 우리의 인간적인 나쁜 조건 탓, 조상 탓으로 돌리고 문제에 늘리는 것은 운명론에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자연적 환경은 힘들었지만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찾아 삶의 지경을 넓혀 잘난 어느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던 야베스와 같이 연약한 여인네로 일어나 나라를 구한 드보라, 야엘,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디디고 일어난 바락이 자랑스런 믿음의 승리이다.

저들이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평범한 우리에게겐 엄청난 격려가 된다. 비록 평범한 저들이나 열심히 합심한 결과로 정말로 기적을 낳았다. 드보라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는 자를 위해 군대도 일으키는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의 하나님, 때에 따라 알맞는 자를 일으키어 그 뜻을 이루시는 주관자 하나님, 주의 대적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 있게 돕음같이 하시는 이시였다.

이 하나님을 믿어 별 쓸모없을 사람들을 찾아내어 세워주고 나라를 구하는 드보라 말씀을 중심에 붙들고 순종한 결과 역사에 길이 남는 영웅이 된다.

heenlee55@hanmail.net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우동 340-(1131-231)</p>	<p><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2)197-8383~9, Fax: (03)19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7:00(월-토)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p>	<p><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3동 713-26호</p>
<p><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b>승중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p>	<p><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p>	<p><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6 63-3, (150-051)</p>	<p><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142-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고동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p>	<p><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30 Tel: (82)2-3142-8080, Fax: (02)3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hinchon.org</p>	<p><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33길 50-1 www.anamjil.or.kr</p>
<p><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kog.org</p>	<p><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오후 9:0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9:30 Tel: (02)1942-6881, Fax: (02)1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현면사무서 부평구 신곡동 294-1(1403-838)</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9-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월동 259-12</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특별한 관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 사람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수한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특별하게 지어진 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특별이라는 말은 아무 때 혹은 아무 것에나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다. 가족이나 사람

하는 연인은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이 특별함으로 인해 삶을 함께 공유한다. 나아가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준다. "우리(사람)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사람)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사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만 확증되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얼마 전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격분해 흥기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가 뉴스로 회자되었다. 일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식에게 한두 마디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격분해 흥기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의식을 잃

고 쓰러진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한 말이 특별함이 무엇인가를 대변한다. "옷을 갈아 입고 도망쳐라." 아들이 휘두르는 흥기에 맞아 터지고 찢기며 자신이 흘린 피가 아들의 옷에 묻은 것을 보고 아들의 안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한 안타까운 모정이었다. 특별함은 상식이나 심지어는 본능마저 뛰어넘는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눅23:34). 아무 죄도 없는 자식을 심자가에 못을 박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뜻이 박히고 있는 예수님의 간구였다. 전 세계인구 75억 중 이슬람 18억, 사회주의권 20억, 힌두교권 14억을 포함한 52억은 3분의 2가 넘는 인구다. 그들의 대다수는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이 정점에 이른 현대에서 어떻게 그

릴 수 있는가를 묻고 싶은 현실이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욕심이 잉태되어 있다. 욕심이 잉태되어 있기에 사단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들을 귀가 없다. 사단이 그 복음이 들리는 것을 방해하고, 들려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까닭이다. "누구든지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며 함과 같으니라"(롬10:13-15). 전하여 듣게 하고 듣고 믿어서 주의 이름을 그네들 52억도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관계)는 이미 허락이 되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

이다. 먼저 믿어 복음에 빛진 자가 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낫을 놓고도 그것이 기억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닮음이 없는 흑세무민(感世誼民)에 묶여 있는 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은 이 세상에서는 지탄을 받는 패륜아임이 분명하지만 숨이 넘어가면서도 "옷을 갈아 입고 도망쳐라"고 염려하는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인 것처럼 오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복음으로 들어 믿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이기에 복음에 빛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특별한 관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포기하신 자는 아무도 없다.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이 아직 견재한 것이 그 증명이다. hanmac@cmi153.org



OC교회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오렌지카운티교회 협 이서 회장 연임 28회 정기총회...수석부회장에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는 17일(목) 오전 10시30분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제 28회 총회를 열고 이서 목사를 회장으로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서 목사는 "교회협이 1년을 또다시 허락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회에 젊은 분들이 영입이 된 것에 감

사한다. 28대 교협을 많이 기도 해주셔서 하나 되어 섬기는 사랑으로 좋은 다리역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OC교회협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영 목사(큰빛감리교회)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미주비전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돼 민경영 목사(나침반교회)가 기도했으며 은혜한인교회 여성합창단이 특송을 불렀다.

이어 윤우경 집사(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이사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분회 이사장)가 '꿈을 꾸게 하는 사역이 됩시다'(창37: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중대 장로(OC한인회장),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사장), 신원규 목사(좋은마을교회)가 축사했으며 윤성원 목사(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이서 목사 사회로 열린 회의는 개회선언, 회의록 서기임명, 서기보고, 사역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이사회 보고, 28대 회장단 인준, 기타토의, 회의록 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13회 총동문의 밤 1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제2의 도약" 동부개혁장신 제 13회 총동문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구 목사) 총동문회(회장 이종태 목사)가 주최한 제 13회 총동문의 밤이 지난 21일 저녁 심령이가난교회(이종태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동문들은 초대학장 장영춘 목사를 회고하며 전임 학장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이날 본교 1회 졸업생 장미은 사모도 참석했다.

이종태 회장은 "지난 32년간 29회기를 맞이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2019년을 맞아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가 제

2의 도약을 시작했다. 총동문회 역시 제2의 도약을 해야겠다"고 말하고 "동문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뤄지기를 소원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1부 예배는 이종태 목사(신도로 기도 정기대 목사(부회장, 18회), 성경봉독 최하숙 전도사(부회장, 14회), 찬양 재학생찬양대, 설교 이원호 목사(7회), 헌금특송 이종태 목사, 봉헌기도 이종원 목사(10회), 축사 노기승 목사(5회), 신학교소개 학

감 허준 목사(10회), 격려사 이규본 목사(1회), 동문선교사 후원금 전달(강민숙/일본, 채왕규/필라 뉴비전청소년사역, 김임선/니카라과, 정성호/캄보디아예정), 광고 장규준 목사(총무, 15회), 축도 이용호 목사(1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원호 목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엡4:17-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첫째,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셋째 옛사람을 벗기 위해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고 역설했다.

노기승 목사는 동부개혁장신을 졸업하고 미남침례신학교를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며 "동부개혁에서의 배움이 밀거름이 됐다"며 "교계에서 불법을 행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본 목사는 "격려 받아온 사람만이 격려할 수 있다"며 "멘토를 가지라"고 격려했다.

2부는 만찬과 퀴즈대회 등으로 친교를 나눴으며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유원정 기자)



제34회 마틴루터킹 퍼레이드가 'Healthy Bodies, Healthy Minds, Healthy Democracy'를 주제로 사우스 LA에서 열렸다. 사진은 그랜드마살로 초청된 전 국회의원 김영진 장로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Healthy Bodies, Minds, Democracy' 제 34회 마틴루터킹 퍼레이드 한인 동참

'비폭력 저항의 상징'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제 34회 킹덤데이 퍼레이드 행사가 21일 오전 10시15분 LA에서 펼쳐졌다.

'Healthy Bodies, Healthy Minds, Healthy Democracy'를 주제로 열린 이날 퍼레이드는 마틴루터킹 블러비드 선상 웨스턴 예비뉴에서 시작, 크랜서 블러비드를 거쳐 버는 예비뉴까지 3마일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번 퍼레이드에서는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이 그랜드 마살로 참가했으며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허브 웨스 시의장, 마크 리틀리 토마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퍼레이드는 흑인커뮤니티 단체들 외에 히스패닉들은 물론 한인커뮤니티에서도 참여해 마틴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평화정신을 함께 축하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영진 장로와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그리고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그랜드마살로 참여했으며 새에덴교회 전사합장단원들이 퍼레이드에 동참했다. 김영진 장로(전 국회의원)는 "마틴루터킹 퍼레이드에 20년째 계속 참석했으며 작년부터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살로 초대받아 참여하게 됐다"며 "마틴루터 킹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전진이 인류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지구촌 평화와 정의가 회복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퍼레이드에 한인들을 대표해 김응화 무용연구소 단원들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장구와 쟁과리를 들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히스패닉 무용단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응화 무용연구소 김응화 대표는 "해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퍼레이드 참여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인과 별 차이 없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한국문화를 타인종들에게 선보이고 우리고유의 문화를 공연을 통해 보여줌으로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게 돼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퍼레이드에 앞서 20일 오후 5시30분, 옥스퍼드팔레스 호텔에서 세계문화스포츠재단(회장 전동석 목사)과 킹덤데이 퍼레이드 위원회 공동주최로 마틴루터 킹 레가시 디너파티를 가졌다.

맥시 워터스 거주하원의원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김영진 장로(전국회의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서영석 회장(민주평통LA)의 격려사와 이길소 목사(레이마미션 대표)의 마침기도로 끝맺었다.

(박준호 기자)



LA 카운티 116주년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LA카운티 116주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

116주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이 15일 LA카운티에서 열렸

다. 이날 행사는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와 남가

미주한인이민 116주년 기념 및 킹 퍼레이드 김영진 장로 그랜드마살 위촉기념 20주년 기념식

미주한인이민 116주년 기념 및 킹 퍼레이드 김영진 장로 그랜드마살 위촉기념 20주년 기념식이 20일 오후 2시30분 나성열린문교회(구 나성서부교회)에서 열렸다.

안신기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새에덴교회 전사합장단이 축가를 불렀으며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미주한인이민 116주년 기념 및 킹 퍼레이드 김영진 장로 그랜드마살 위촉기념 20주년 기념식에서 김영진 장로가 한기형 교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이 함께 진행했다.

행사는 LA카운티 Supervisor chair-Janice Hahn, Kathryn Barger, Hilda Solis, Mark Ridley-Thomas, Supervisor-Sheila Kuehl 등 모든 수퍼바이저가 참석했고 150명의 타민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 축하공연은 3명의 한인민속 고고춤 팀이 연주했으며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다. 이어 황인상 부총영사와 이병만 미주한인재단회장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가시제공: 남가주교회교회협의회)

이어 김영진 장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한 뒤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인의 노래를 이날 행사장을 찾은 모든 이들이 합창했다.

한편 기념식이 열리기 전 가진 1부 예배는 최대현 장로(남가주교협 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정경희 목사(여목사회 회장)가 성경봉독, 열린문교회 살롬권사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한기형 목사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학개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특송은 남가주교협 회장단이 맡았다.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게시판



## 한인 청소년/청년 2019 커리어 포럼

한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2019 커리어 포럼이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와 퀸즈 YWCA, CMP인력개발센터 주최로 2월 10일(주) 오후 4시30분부터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시행정서비스국과 파트너십 협약 체결후 처음 갖는 포럼으로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정보와 절차, 현지 공무원들과 다양한 직업 소개, 팔로우업 프로그램 사전 등록 등이 진행된다.

▲문의: (646)770-6311 김재은 코디네이터(jaeunkim@cmpny.org)

## Prepare Enrich 강사교육

결혼 예비커플과 기혼부부들을 위한 Prepare Enrich 상담이 2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페밀리터치 사무실(218 Main St, Little Ferry, NJ 07643)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상담가, 목회자, 가정사역자, 사회복지사 등이며 참가비는 250달러(점심 제공). 접수마감은 1월 31일(목). 결혼상담자훈련워크샵(Prepare Enrich Certification Training)을 마치면 Prepare Enrich사가 인정하는 공식 상담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강사는 조이정 박사.

▲문의: (201)242-4422

## 화요찬양모임

뉴욕 장년 세대의 찬양 활성화와 찬양 보급을 위한 화요 찬양모임(대표 유태웅 목사, 라이프라인미션)이 2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킨더마저 미션센터(대표 임성식 목사, 169-05 노던블러바드, 플러싱)에서 열린다.

▲문의: (646)258-4161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신년감사예배 및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이승만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

### 이승만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신년감사예배 및 세미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가 지난 21일 오후 4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건국사 특별세미나를 가졌다.

부회장 송병기 목사 사회로 1부 예배는 기도 김영호 장로(뉴욕장로연합회장), 말씀봉독 남태현 장로(부회장), 특송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장석진 목사, 헌금기도 이미선 목사(여성분과), 축도 안장의 목사(직전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는 “그 급한 탈출에서 하필 그것을...?”(출 13:17-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모세는 조상 요셉의 뼈를 갖고 나온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계승을 위한 희망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이승만 대통령 뉴욕지회에 1)건국 대통령 이미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 2)동상 재건업은 동 전개 3)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대통령으로 알리기 4)당당한 역사지킴이 되기’를 제안했다.

2부 하례식에서 회장 김명옥 목사는 “뉴욕지회가 20여년간 활동해왔는데, 이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며 모든 단체의 사업이 돼야 한다”며 “오늘날

한국이 이 박사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다. 좌파 우파를 떠나 이 대통령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축사 박태규 뉴욕목사회장, 격려사 김남수 미주총회 총회장(사무총장 황일봉 장로 대독), 홍중학 박정희대통령뉴욕기념사업회장, 축시낭독 조의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는 사무총장 현영갑 목사가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현 목사는 △국가란 무엇인가 △신앙적 자유주의의 발달 △사회적 자유주의의 발달 △자본주의의 발달 △하나님의 섭리 등을 성경과 연결해 설명하며 “기독교 신앙이 자유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다. 평등, 자유, 생명, 행복추구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뉴저지 이승만아카데미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코네티컷에도 이승만아카데미가 시작된다.

(유원정 기자)

#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 뉴저지교협 2019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저지교협 2019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1월 20일 오후 6시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전 참전 한국과 미국 용사들을 초청해 선물을 전달했으며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형제가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뉴저지교협 2019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홍인석 목사는 신년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고 힘 있게 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며 “뉴저지 지역 많은 교회들이 크기에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과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주 안에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교회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해짐을 믿는다. 뉴저지 250여 한인교회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차세대와 가정, 자녀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새해에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1부 감사예배는 부회장 장동신 목사 사회로, 기도 고한승 목사(뉴저지연합교회), 성경봉독 윤석래 장로(이사장), 특송

뉴저지장로성가단, 말씀 홍인석 목사(회장), 희망 메시지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형제, 특별기도, 봉헌특송 뉴저지사모합창단(지휘 장미자 사모), 헌금기도 육귀철 장로(회계), 광고 박인갑 목사(총무), 축도 강세대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홍인석 목사는 “서로 사랑하라”(요13:34-35)라는 설교에서 “본문 ‘서로 사랑하라’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키기 힘든 말씀 중 하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할 수 있다”며 “올 한해 지역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며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별기도는 오범준 목사(뉴저지방주교회)가 △미국과 조국을 위해, 김종국 목사(증경회

장)가 △뉴저지 동포 및 교회와 교회를 위해 합심통성기도를 인도하고 마무리했다.

미동부지역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형제와 한국 근대사의 위대한 어머니로 선정된 양정숙 어머니의 희망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하례식은 서기 김대호 목사 인도로, 개회기도 김종윤 목사(목사회 회장), 한미국가제장 장유찬 형제, 신년사 홍인석 목사(회장), 축사 박효성 총영사(뉴욕총영사관)와 버겐카운티 관계자, 참전 용사들에게 기념품 증정, 답례사 방흔제(6.25 참전유공자회 부회장), 축가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폐회기도 및 만찬기도 허상희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협은 참석자들에게 주소록을 배부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지역사회 약자들 꾸준히 섬겨”

### 은회곤 감독, 마틴 루터 킹 인권상 수상

미주지역교회 은회곤 감독(뉴욕 참사랑교회)이 뉴욕 롱아일랜드 나사카운티에서 수여하는 마틴 루터 킹 인권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뉴욕참사랑교회 담임 은회곤 목사(가운데)가 마틴 루터 킹 인권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미국 전역에서 올해로 34회째가 되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펼쳐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시상식은 은회곤 감독을 비롯 아델파이대학교 부총장 Dr. Perry Greene, Dana Boylan 변호사, Educator Lynnette Carr-Hicks 음악감독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나사카운티는 물론 뉴욕주와 상원까지 포함된 것.

위원회는 선정 이유로 “은회곤 감독은 시무하는 참사랑교회를 통해 부임 후 지난 10년 동안 1회용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매해마다 오픈커뮤니티,

예산 1% 나눔운동,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입양아를 포함한 그들의 가족 초청, 지역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종들의 화합과 다문화 공존과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헌신한 일들 그리고 은 감독이 소수민족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10여 년 동안 꾸준히 돌보며 섬기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기여해온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2019 신년 첫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예수님 뜻을 향해 달려가자”

###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2019 신년 첫 월례회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회장 김영환 목사) 신년 첫 월례회가 1월 15일 오전 퀸즈침례교회(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경건회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최은중 목사, 설교 박춘수 목사, 광고 신은철 목사(총무), 봉헌기도 및 축도 정대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부회장 박춘수 목사는 “예수님, 그 뜻을 향해”(빌 3:12-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해가 가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영원한 목표는 예수님”이라며 “첫째, 예수님을 위한 ‘아직’의 자세, 둘째로 예수님을 위한 자제를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바울 같이 ‘아직’의 자세를 버리고 ‘아직’의 자세로 경주자와 같은 열정의 집중력으로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한해의 삶이 되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김영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는 누가복음 15:7절의 말씀을 나누며 “뉴욕 이민사회와 세워진 교회위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것에 감사한다. 언제나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과 함께 계획되는 2019년의 꿈이 풍성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교회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줄 믿는다”고 신년 축사를 전했다.

한편 2월부터 뉴욕지방회 월례회 호스팅 교회는 새문교회, 뉴욕안디옥침례교회, 부활의새빛교회, 야외예배, 뉴욕은경주자와 같은 열정의 집중력으로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한해의 삶이 되기를 주

(기사제공: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NC교협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NC교협 새 회장에 최유찬 목사 선출

### 신년하례회 및 제29회 정기총회, 부회장 한인철 최혁진 목사

노스캐롤라이나(NC)한인교회협의회 2019년 신년하례회 및 제 29회 정기총회가 지난 14일 오전 11시 샬럿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28개 회원교회 목사들과 사모들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후 진행된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진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유찬 목사(샬럿제일장로교회) △제 1부회장: 한인철 목사(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제 2부회장: 최혁진 목사(골즈보로한인장로교회) 총무, 회계, 서기는 회장단의 총무를 거쳐 추후 통지된다.

안건으로는 △재정보고에 대한 감사를 추후 받기로 결정 △2020년 NC교협 30주년 기념을 위한 준비에 힘 모으기(사진/스토리/NC교협에 바라는 글/각종 순서지 및 자료 제공 요청).

한편 온나라교회(샬럿) 정을기 목사가 2018년 12월 31일

은퇴하고 후임으로 한영기 목사가 시무하게 돼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고는 다음과 같다.

△교회 및 담임목회자 명부 작성 협력요청(이메일로 보낸 등록부를 다운 받아 그 파일에 정보를 삽입해 다시 첨부파일로 보내면 됨).

△NC교협 목회자가족수양회: 7월 29일(월)-31일(수) 2박3일간 Atlantic Beach 가까이 위치한 성공회수양관 Trinity Center(618 Salter Path Rd. Pine Knoll Shores)

△2019년 샬럿 유니온신학교 한인목회자 계속 교육 세미나: 3월 4일(월)-6일(수) 2박3일간 이동원 목사(지구총교회 원로)를 강사로 “성경적 설교와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유니온신학교 샬럿 캠퍼스(5141 Sharon Road)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노스캐롤라이나교협)

## 중남미 지부설립 방문위해 특별기도

### 글로벌뉴욕여목연 26차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협회(회장 심화자 목사)가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에서 26차 어머니기도회를 갖고 2019년 새해를 시작했다.



글로벌뉴욕여목연 26차 어머니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1부 예배는 예동교회 김홍배 목사와 이상환 목사의 뜨거운 찬양인도 후 권캐더린 목사 인도로 기도 장만자 목사, 성경봉독 유유니게 전도사, 특송 조문자 목사, 말씀 양민석 목사, 합

로 건강할 뿐 아니라, 주변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글로벌뉴욕여목연)

심기도 최근선 목사,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안경순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뉴욕교협부회장)는 “취한 기도”(삼상1:10-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대해 브리나와 한나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양 목사는 “한나가 순기능적으로 승화시킨 그녀의 영적 숨은 비결인 기도는 그녀의 상처를 넘어서게 하고, 치료하게 하며, 회복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였다”며 “회원스스

로 건강할 뿐 아니라, 주변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히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중남미 엘살바도르(황은숙 선교사)와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어머니기도회 시작을 위해 선교지로 떠나는 전희수 목사와 권캐더린 목사, 현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시간을 가졌다.

2월 어머니기도회는 2월 20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린다.



남가주교회협최 신년교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신실한 종으로 충성하라’

#### 남가주교회협 신년교례회, 이우형 목사 설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신년교례회가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석부 목사(부회장, 나성금 란교회 담임)의 사회로 열린 제 1부 예배에서는 김중대 목사(상임 이사)의 기도 후에 이우형 목사(상임이사장)가 ‘신실한 종으로 충성하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으며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가 축도했다. 이날 2부 순서에서는 공로패 증정, 신규 임원진 소개, 지윤자 사모의 축하공연, 제임스 안 장로와 김향로 이사장의 신년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취임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우측 원안은 취임하는 민김 회장이 이임하는 이관우 회장에게 연합회기를 전달받는 모습

### 민김 회장, 윤우경 이사장 취임

####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39대 회장/이사장 이취임예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민김) 제39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20일 오후 5시 옐리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민김 회장은 “연합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한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윤우경 신임 이사장은 “지난 1999년 OC남전도회 연합회로 시작된 본 연합회는 20여 년 동안 OC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로 화합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왔다”며 “2019년도에도 기도로 하나가 되고 화합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전민철 목사(방송인)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한창훈 부이사장(OC한인교회)이 대표기도, 유재원 부총무(새소망교회)가 성경봉독, 조영석 목사

(OC제일장로교회)가 특송했으며, 박경호 목사(전열바인침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별명 그리스도인’(행11:19-3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관우 회장과 이소연 이사장이 이임사를 했으며 민김 회장과 윤우경 회장의 취임사가 있을 후 회기전달, 감사패 전달, 공로패 전달, 감사장 전달로 이어졌다. 이날 축사는 김중대 회장(OC한인회), 신영균 회장(OC노인회), 김택수 회장(OC장로협의회), 정우영 장로(베델한인교회)가 맡았다. 격려사는 김근수 목사(OC목사회), 김기동 목사(OC교협 중경회장/총만교회), 영길 전가주하원의원, 심필하 회장(미주한인재단OC)이 하고 김향길 목사(OC 원로목사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상담원리 설교와 접목...강사 전형준 교수

#### 제8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

제8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14일부터 19일까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에서 전형준 교수(백석대학교/성경적상담학회)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전형준 교수는 “그동안 7회까지는 성경적 상담 중심으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며 “1회는 성경적 상담과 신학원리, 2회는 성경적 변화와 역동적 상담방법, 3회는 성경적 부부상담, 4회는 성경적 청소년 자녀교육, 5회는 성경적 중독상담, 6회 성경적 내적치유, 그리고 7회는 성경적 우울증상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번 8회 컨퍼런스 주제는 성경적 상담설교”라며 “성경적 상담원리를 설교와 접목해서 회중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8회 성경적 상담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전형준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의 특징은 참석자의 대상이 바뀌었다. 지난 컨퍼런스까지는 상담사역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이번 컨퍼런스는 주로 목회자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전 강의 시간에 상담설교의 모델을 보여주고 집단 상담을 설교로 풀어 나가며 그로인해 마음의 변화를 묻고 고백하는 시간을, 오후에는 성경적 상담과 상담을 접목한 상담설교를 소개한다. 그리고 강의가 마치고전에는 로마서를 통해 성경적 상담 설교를 본문으로 다뤘다.

(박준호 기자)

### “다음세대와 열방 섬기는 선교회”

#### 시드인터내셔널USA 신년감사 및 박신욱 대표 취임예배

시드인터내셔널USA 신년감사와 대표 취임예배가 15일 오전 11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박신욱 목사는 “1995년 8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고,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전부해주셨다”며 “최선을 다해 사역했고 성과도 얻었지만 선교사역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좀 더 고 이원상 목사님의 삶과 인격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나의 행동, 결정 등을 돌아보며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기도제목은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소서”라며 “시드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곳이다. 시드선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 본받아서 포기하고 낮아지고 복종해서 땅 끝까지 복음전하는 선교회, 특별히

청년선교사들을 배출해서 다음세대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단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신종 목사(메릴랜드 베델교회, 부이사장)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진영 선교사(시드웨이브 디렉터, 실크웨이브 대표)가 기도했으며 노창수 목사가 ‘겸손하신 예수님’(빌2:5-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박신욱 목사의 인사말과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와 김철민 장로(CMF가정사역원 대표)의 축사했으며 백신종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선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섬기는 선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김상규 목사(안디옥장로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시드인터내셔널USA 신년감사와 대표 취임예배에서 대리로 취임하는 박신욱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민교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주제로 열린 ‘성경목회 부흥목회 세미나’에서 주강사로 참여한 전태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이민교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 성경목회 부흥목회 세미나, 강사 전태식, 김영길, 한기홍, 이종용 목사

‘이민교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주제로 열린 ‘성경목회 부흥목회 세미나’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주양국교회(담임 지용덕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전주초대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가 주강사로 나섰다. 지용덕 목사 사회로 시작된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가 특송을 했으며 전태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전태식 목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교회가 왜 필요할까? 고백자가 천국 간다면 왜 교회가 필요할까?”라고 화두를 던진 후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는 곳이고 열면 닫을 자 없는 천국열쇠를 받는 곳이다. 천국 열쇠와 천국 가는 말씀을 성경과 목사를 통해 받는 곳”이라 말했다. 전 목사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를 많이 모으기 위하는 것이 아닌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예배의 대상은 전능자 하나님이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주의 종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말하며 “말씀을 믿으면 죄짓지 않게 되고 목사가 교회를 더럽게 하는 법이 없다.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 죄를 짓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병을 준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 고통을 겪어 돌이키게 하기위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신명교 목사(연세아카데미 부원장)의 인도로 진행된 첫째 날 오후 집회에서 백선용 목사(목사장로부부찬양단 단장)가 대표기도를, 조후연 목사(연세아카데미 재무)가 성경봉독을, 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특별찬양을 한 후, 전태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세미나에서는 한기홍 목사가 ‘성경적 목회와 위기 대처방안’에 대해, 셋째 날은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2019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금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서부교회게 게시판

#### 제 12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

제 12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대회장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G.I.M 교회담임)가 1월 27일(주일) 오후 5시 30분 글로벌국제선교연합회 주최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Chinese Grace Baptist church(영어부 담임 Joon Choi 목사)에서 열린다.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대하7:14)라는 주제로 35여 다민족이 참여한다. 한편 26일(토) 오전 10시 30분에는 Faith Kim 교수(Gateway Seminary, 침신대)의 글로벌성리더십 특강과 민봉기 목사(산호세대교회)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로부터의 교회의 영적각성 세미나도 열린다. www.vision.org ▲문의: (925)639-9527

#### 은혜의 쉼터 워크샵

사별가족의 회복을 위한 모임 은혜의 쉼터 워크샵이 ‘사별 슬픔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26일(토) 오후 7시30분부터 로렐장로교회(1759 W Broadway, Anaheim)에서 열린다. ▲문의: (714)287-2872최경미 전도사

#### 미성대학교 총장 초빙

미성대학교(이사장 김광수 목사)는 제4대 총장을 초빙한다. 지원자격은 △미성대학교 설립정신에 투철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며 미성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 △미주성결교회의 헌법과 미국 연방 교육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복음주의 신앙인 △미주성결교회 혹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받거나 미주성결교회 목사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대학발전 및 운영계획서 5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3018 Hermosa Ave, La Crecenta, CA 91214로 보내면 된다. 접수마감은 3월 16일(토)까지. ▲문의: kwangkim82@hotmail.com

#### OC목사회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근수 목사)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2월 3일(주일) 오후 5시 갈보리 장로교회(담임 김정찬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620-6400

#### 유니온교회 찬양과 간증의 밤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는 찬양과 간증의 밤을 2월 1일(금) 오후 8시 예배센터에서 갖는다. 강사는 심삼종 교수(색소포니스). ▲문의: (626)858-8300

####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살전 5:16-18)’이라는 주제로 24일(목)부터 27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장학일 목사(예수마음교회 담임). ▲문의: (714)446-6200

####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 창립대회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서부총회(공동준비위원장 황선철, 강승태, 오윤호)가 25일(금) 오후 5시30분 가든스윗호텔에서 개최된다. ▲문의: (213)249-0703, (415)310-0255, (206)769-4141

#### 행정목사 청빙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풀타임 행정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행정사역 경험(찬양사역 및 제자훈련 경험자 우대),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고 영어로 의사소통과 사무처리가 가능한 자로 △이력서 △자기소개서(신앙간증, 가족소개, 가족사진 첨부, 신앙고백 및 소명과 비전, 은사)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추천서 2부(1부는 현재 혹은 이전교회 담임목사) △최근 1년 이내의 본인설교 동영상 또는 음성설교 2편을 2월 9일까지 admin@thanksgivingchurch.com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 (714)521-0991

### 총 90명에 153,200달러 전달

#### 2019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금 수여식

2019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금 수여식이 1월 21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밀알 실행이사 양인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돼 ‘밀알 소도리’ 영상 상영과 윤필원 목사의 기도, 미주밀알선교단 부이사장 겸 미주복음방송 사장인 이영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영선 목사는 ‘땅 끝을 확신한 자의 복’(행1:8)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밀알 장학금을 정성껏 마련해 매년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학생들도 장애라는 절망적인 ‘땅 끝’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을 발견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나누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장학생들을 격려, 축복했다. 이어 장학생 이찬희 학생의 특송과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의 감사의 말씀에 이어 이영선 미주밀알 부이사장의 축도로 수여식을 마쳤다. 이날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미주장애인장학금 9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38명, 제3국 및 북한 장학생 1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90명에게 153,2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금이 출범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387,000달러에 이른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인권위는 더이상 종교·사학 자유 간섭 마라”****동반교연 성명서 발표... 숭실대 권고결정 취소 촉구**

동성에 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성과 차별을 이유로 숭실대에 권고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숭실대는 2015년 10월 학생들이 동성혼을 미화하는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학내에서 상영하려 하자 학교 설립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설물 대여를 취소한 바 있다.

또 교직원 채용 때 '무효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숭실대의 기독교 설립정신 수호와 정체성 보호를 위한 결정이지만 국가인권위는 지난

달 이것이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동반교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효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 정관 규정과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

했다”면서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동반교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에 관여할 교직원 임용 조건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계약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라고 경고했다.

동반교연에는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짜 인권으로 기독교육 말살”****한동대 학부모들 시위... 전국학부모기도회 300여명 시위**

한동대 학부모들이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한동대 전국학부모기도회' 소속 300여명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의 과도한 대학운영 개입을 비판했다.

수원에서 온 한창균씨는 “자녀를 한동대에 진학시킨 것은 대학이 기독교 신앙 아래 인성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기독교 신앙과 전면 배치되는 대다수 다자성에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고 대학 자율권마저 박탈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부도덕한 소수자의 인권만 보호하고 그걸 반대하는 다수자의 인권은 무

시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인권이란 이름을 내세워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지 마라”고 목청을 높였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는 “대한민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매춘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면서 “그런데도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가 '성매매가 노동'이라는 주장을 인권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회가 만든 법률과 사법기관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치와 종교자유를 침해하며 법률 위반까지 조장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한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한동대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칙에 어긋나는 학생을 정당하게 징계했다”면서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한동대를 공립 중·고등학교처럼 취급하며 징계 번복을 지시했다. 언제부터 한국 사회가 매춘 동성에 다자성애를 고상한 전부인권에 포함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인권위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 사학의 교육권을 침해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 대전 세종 인천 포항 등 20곳에서 모인 학부모들은 성명서에서 “가짜 인권으로 기독교육을 말살하려는 국가인권위가 한동대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1만5000명의 학부모와 전국교회, 단체 등과 함께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권선거·성폭력 의혹’ 전주군 기감 감독 사퇴****19일 기감 감독회장에게 사임서 제출**

금권선거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전주군 목사가 21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남연회 감독에서 사퇴했다. 전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임서를 지난 19일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제출했다.

전 목사는 사임서에서 “나로 인해 기감과 서울남연회가 혼란스럽고 다들까지 이어져 선교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해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지지에 준 연회와 교회에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추가적인 시비나 비

방이 없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군 제명과 감독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목사가 감독직에서 사퇴한 것이 다행이며 조속히 새로운 감독을 선출해 서울남연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며 “공대위는 금권선거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근 기감 행정실장은 “연회는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이고 총회는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새 감독 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남연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직무대행을 선출키로 했다. 서울남연회 관계자는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3~4개월 안에 감독을 선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서울남연회 감독에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하지만 후보 시절부터 금권선거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전 목사는 “사회법에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삭발·혈서****경남지역 목회자·성도들**

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을 방종의 불구덩이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남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혈서를 썼다.

원대연 장원 마산교회 목사와 최은순 사모 등 8명의 교계 인사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삭발했다. 또 통영 거제 양산 고성 김해 사천 진주 등에서 온 20명도 반대 혈서를 썼다.

원 목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박종훈 교육감이 제정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학생과 대립하는 당사자로 보고 있다”면서 “게다가 동성애, 임신·출산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하고 있는데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창원 경상고에 재학 중인 장모군도 “개성·용모를 자유롭게 실현할 권리,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삼성생명 앞에서 1인 시위**

정동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총회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대출을 승인한 삼성생명은 농어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정 총회장은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부실 관리로 화를 키웠다. 삼성생명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나왔다”며 “법원과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조사로 삼성생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기하성연금공제회에 따르면 기하성 구 서대문측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과 경남미래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가 민의를 무시한다면 경남도민과 시민단체, 2500여개의 경남 교계와 맞서 싸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모 전 공제회 이사장 재임 때인 2007년 3월 말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차례 삼성생명으로부터 83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유용했다. 박 목사는 또 총회 자산 수익원을 횡령해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등 일탈을 일삼았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8일 서 전 이사장과 박 목사에게 대해 각각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대출금 중 일부가 상환됐지만 공제회 측 손실액은 7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2일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적법한 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신천지, 국내 포교 주춤 해외서 한류로 접근****세계 40개국서 포교활동...신도 수 2만2478명**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2017년 12월 현재 신도 수를 20만2899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대비 1만6724명(9%) 증가한 수치이다. 세를 과시하기 위해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신천지의 포교전략과 추이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소장 신현욱 목사)는 22일 경기도 구리 교문동 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가 국내 포교에서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는 반면 해외와 비신자 포교에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해외와 비신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선교사와 지역 교계가 앞장서 신천지 예방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신천지 강사가 군소신학교를 졸업한 뒤 세운 위장교회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지역에서 활개 치는 마태지파(15.2%)였다. 그 뒤를 부산 야고보지파(14.5%), 대

구·경북의 다대오지파(11.8%), 광주외 베드로지파(9.5%), 서울 야고보지파(9.3%)가 따랐다. 서울 강서, 부천, 김포, 광명지역에서 활개 치는 바들매 지파가 4.6% 성장으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지파도 6~8%의 성장을 이뤘다.

12개 지파 중 신도 수가 11번째인 마태지파가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외부의 포교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현욱 소장은 “지난해 이 지역은 전도특공대 개념의 총회 특전대와 타 지파 특전대의 전폭적인 포교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이 자료는 지난 13일 총회 때 보고한 것인데, 교주 이만희씨의 각 지파별 1만2000명 포교에 대한 집적이 크기 때문에 질책을 우려해 허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2인자이자 내연녀였던 김남희씨의 이탈과 ‘미전도시 110만원 벌금’ 건으로 탈락자가 적지 않게 발생했을 텐데 분위기 저하를 우려해 이를 집계에서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

다”고 설명했다.

신천지가 발표한 통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15년부터 증가하는 외국 신도 수치다. 신천지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포교활동을 펼치는데, 외국 신도 수는 2만2478명이었다. 터키에서 포교활동을 했던 김모씨는 “2016년부터 터키에서 2년 3개월간 머물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컸지만 한류열풍을 앞세워 화장품 사업과 문화카페 개설, 한글교실을 운영하며 포교에 집중했다”면서 “그 결과 터키인 강사 4명, 포교활동이 가능한 현지인 7명을 길러냈고 입교자가 70여명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내 포교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2014년부터 종교대통령, 만국회의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의 지난해 수입은 3322억2174만원이었다. 신천지 간판을 붙인 공식교회는 71개, 수강생을 미혹해 성경공부를 진행하는 선교센터는 266개, 사무실은 100개, 위장교회 및 복음방·모임방 등은 921개였다.

이어졌다.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자유지만 모든 국민이 즐기는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을 꼭 찾아야 하는지”라면서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유별난 것 같다”고 했다. 인터넷 기사 댓글에선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채널을 돌리고 싶어진다. 시상식에선 특정 종교에 대해 언급을 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르자 수백 개의 ‘좋아요’가 붙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연예인 수상소감 적절한 걸까?****시상대 위 신앙고백을 바라보는 두 시선**

연예인들 중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한국에서 지난 연말 시상식에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연예인들의 신앙고백이 이어졌다.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발언을 제한하자는 주장마저 나왔다.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수상소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미션라이프는 이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시각을 보도했다.

**“감동” - “불편” 엇갈린 시선**

스타들의 시상대 위 신앙고백에 대해선 대체로 좋은 반응이다. 유명 커뮤니티에선 이영자의 수상소감을 놓고 “다시 오뎅이처럼 일어난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듣고 있으니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를 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르자 수백 개의 ‘좋아요’가 붙었다.

**“목사 자격 등 신앙 본질 문제까지 법원 개입 우려”****진정한 ‘교회갱신’은?...국가권력에 의한 교회 통제**

진정한 교회갱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할 때 시작된다. 반면 교회 지도자들의 흥결을 추적해 언론에 알리고 각종 소송으로 퇴출시키려는 행위는 교회갱신, 성경회복을 가장한 ‘자기 의’에 가깝다. 진정한 교회갱신에 대해 미션라이프가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과거 서울 제자교회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기도와 말씀을 통한 회복이 아닌 인위적 교회갱신은 신앙공동체의 해체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진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회를 개혁한다며 목회자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면 종교의 자율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도록 부추기게 된다.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최대한 보장된다. 이런 헌법적 원칙에 따라 교단 총회는 교단의 헌법을 제·개정하고 해석하며 교단 내 각종 분쟁을 처리한다. 목회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소속 교회를 지휘·감독한다. 미션스쿨도 비슷하다.

이 중 목회자·학교구성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교회·학내 분쟁을 해소하며 설립정신을 지키는 것은 노회와 총회, 미션스쿨이 지닌 종교적 자율권의 핵심이다. 이는 신앙질서를 유지하고 존립목적 을 지키기 위한 고유권한으로 종교자유의 요체(要諦)라 할 수 있다.

백현기(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미국은 교회 내 분쟁이 생겼을 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 자치기관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면서 “일본도 신앙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종교단체에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종교단체 분쟁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을 회피하거나 자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신앙 및 교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사 자격,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까지 판단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대표적 인 사례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인용, 다자성애자의 한동대 징계 무효 소송,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한국 목사 자격 불인정 판결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의 3% 이상만 청구 가능토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교회 를 비법인 사단(非法人 社團)으로,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보기 때문에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한 명이

라도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는 물론 교회소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재된 한국교회연구원 소장은 “지금까지 교회갱신, 개혁을 빌미로 한 교회 내 분쟁 사례를 보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는 개전 초기 포격과 같은 의미가 있다”면서 “쉽게 말해 교회분쟁의 ‘판도라 상자’를 손쉽게 열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해 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법원은 신앙공동체의 자율성, 특수성을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범위를 벗어나 노회와 총회에 있어 판단하는 목사 자격 여부 등 신앙 본질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만약 보편적 규범에 명백하게 반하는데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편향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면서 “법이 이데올로기에 매몰되면 경건성과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교단의 헌법규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손질하고 세상 법정에서 종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교도소 선교칼럼 (53)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이영희 목사

## 은사

모니카는 다른 사람이 그녀의 차를 들어 박아서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다리 절단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믿음이 자라서 꽃피우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그녀는 자기의 다리를 절단하기로 결정했고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

“내가 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녀에게는 주님을 섬기려는 열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내게 기도를 부탁했다.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녀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집중했고 그것을 통해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록키마운틴 신문사가 그녀에게 인터뷰할 한 여성 재소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모니카를 떠올리게 하셨다. 그 때 그녀는 몸이 아파서 병실에 있었고 조그만 창문을 통해 기자와 인터뷰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간증을 하겠다고 수락했고 나는 종이에 적어보라고 권했다.

두 시간 후 내가 다시 병실에 갔을 때 모니카는 몇 장의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간증을 쓰기 시작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간증에는 강력한 기쁨부음이 있었다. 인터뷰가 시작되고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나는 주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천국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성령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다. 그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도소에서 그녀와의 만남은 내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축복이었다. 다음은 그녀의 간증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녀를 인도하셨는지 소개한다.

###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니카 발데즈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건 교통사고가 난 지 석달 후의 일이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 남자와 함께 걸었던 꿈뿐이었다. 나는 광란의 축제에서 혼자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정원을 한 남자와 함께 거닐고 있었다. 그는 내게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말했고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덴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고 꼼짝할 수 없었다. 두 다리는 90퍼센트가 잘려져서 간신히 뼈에 붙어있었고 심한 출혈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었다. 응급구조원들과 경찰은 내가 아직 살아있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사실에 놀랐고 최대한 나의 다리를 구하려 노력했다. 다리절단수술에 동의할 사람이 없어서 절단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의미했다. 중환자실에서 두 달을 더 보내며 다리를 절단하지 않았다고 버텼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끔찍한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을.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고 그것을 통해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다시 세우셨다. 나는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을 뿐이지만 “

최고의 성인들”과 성경을 읽을 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함을 느꼈다. 한 번은 나의 길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서둘러 너의 삶을 바꿔라. 시간이 없다. 네 자신을 구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하나님은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내가 보아온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 옆에 와 있는 수호천사를 보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내 곁에는 작은 천사의 손을 잡고 있는 큰 천사가 있다. 가까이에서 볼 수 없다고 여쭙자 허락해주었다. 이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묻는다. “왜 저입니까?” 추수의 때에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정한 자매가 되어주길 바라하며 그 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음을 모두에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한 일들을 나눌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소명을 조금씩 더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영적인 전투에 앞장 서 싸울 것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시며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나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당신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 선교 편지

### 아이티 방문

1월 21일(월) 새벽 2시 40분, 기온이 화씨 7도(섭씨 영하13도)에 체감온도가 화씨 -5도(섭씨 영하20도)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공방이 혼합할 걸로 예상되니 일찍 나오라고 어제부터 잭블루 항공사에서 이메일이 계속 왔습니다.

새벽 3시 25분쯤 뉴욕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습다. 짐을 다 부치고 터미널 후드 코트에 앉아서 싸가지고 나간 고구마와 가래떡으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해서 예정보다 20분 빠른 9시 30분에 아이티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소나피 센터에 도착해서 로사 사모님과 반갑게 만나서 준비해주신 아침점심 식사를 하고 에피도에서 샌드위치 140개를 주문해서 가져온 스티브와 함께 식량과 생필품, 샌드위치, 성경책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건축부지와 살롬 고아원, 브니엘 고아원에 들립니다.

고아원 건축을 위한 부지에는 일차로 관리인 숙소를 짓습니다. 방 둘에 거실과 부엌, 외부 화장실에 참고를 짓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일라바 42번가에 있는 살롬 고아원으로 떠났습니다.

12월에 와서 선생님들 밀린 월급을 지원하고 내내 그 어려운 형편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잔 목사 내외가 마당에 있다가 손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쌀을 내리고, 샌드위치를 마당에 놓은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공부중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 마당에서 파는 팝콘을 열병식 사서 나누어주었습니다. 팝콘 한 봉지가 5달러(7센트)입니다.

원장과 부인은 쌀이 다 떨어지고 있었으면서 제 등을 두드리며 저더러 엔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는 천사로 저를 쓴다고요. 연신 “메시 제지, 메시 제지, 메시 본제”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아이들도 제법 많은 50명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거의 70명의 먹거리가 늘 필요 합니다. 끼니는 무섭게 돌아오고, 아이들은 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늘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잔 목사에게 있습니다.

2월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브니엘로 떠났습니다. 한 시간 넘게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곡예하듯 달려서 오후 1시 반쯤 도미니카공화국 국경에 가까운 브니엘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쇼순과 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데모를 하는 바람에 길이 막혀서 선생님이 출근을 못했습니다. 식량을 내리는 사이에 차 사모가 가져간 목발을 조립했습니다. 작은 어린이용 목발을 집고 다니다가 제법 큰 목발을 받고 돌로스 원장과 쇼순이 웃음을 참지 못하며, “메시, 메시 제지”를 연발합니다.

돌로스 원장에게는 지난달에 왔을 때 망가졌다고 한 스피커를 다시 사다가 주었습니다. 너무 유용하게 잘 쓰는데 망가졌다고 아쉬워했는데 스피커에 마이크도 한 세트 더 추가해서 전달했더니 정말 다시 신나서 좋아하면서 앞으로는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A에 있는 Berean Community Church에서 지원한 성경책 60권을 전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각각 한 권씩 성경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으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돌로스 원장이, 쇼순의 목발, 스피커도 너무 감사하고 바이블은 더 더욱 감사하며 저를 꼭 안아주는데 숨막히는 것 같으면서도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메시 제지 Merci Jezi” 저절로 장단 맞춰 나왔습니다.

두 시가 넘어서 브니엘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많이 막히지는 않았지만, 도로 사정은 날이 갈수록 험해져서 길들이 많이 망가진 것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아이티는 요즘도 매일 데모를 합니다. 석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수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휘발유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짐을 있는 곳도 많습니다. 뭐가 좀 나아진 듯 보이기도 한데 여전히 데모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고아들에게 넉넉히 베풀 사랑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메시 제지, 뽕키 제지”가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몹시도 추운 뉴저지를 떠나서 저처럼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감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보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삼송고아원에 다녀와서 다시 건축부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조항석 목사 드림  
thecornerhaiti@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양양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3, HP. (031)977-8382 39-06-343-8676(교우관)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VIA DEI QUINQUE, 92-38 00175 ROMA, ITALY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65, 39-348-339-1726 39-06-343-8676(교우관) VIA DEI QUINQUE, 92-38 00175 ROMA, ITALY	<b>새애넌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7:00 (절미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2)422-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8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역삼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b>승중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신당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의회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1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동 17길 29(삼정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hon.org	<b>안암 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약현리3길 50-1 www.anamjil.or.kr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암로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원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389-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상대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인촌동 302-67 (140-031)

## “선교사역지의 필요를 위해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남미아태아 대학원” (3)



**강성철 선교사**  
(GMS 브라질 남부지부장)

예를 들면 2018년 3월 3-5일 브라질 최초 선교사중 한분인 황문규 선교사를 초빙하여 “다문화가정사역과 선교” “PODER DO SONHO, AMOR E MISSAO”란 주제로 한국인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각각 강의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8-20일 홀리신학교 교수 박기호 박사를 모시고 9월 8일 G.P-BRASIL 컨퍼런스, 브라질GMS신학대학, 현지인 목회자 및 신학생대상, 9-10일 연합교회(담임 전도명 목사)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학술강좌 9월12-15일 아마존선교사 및 인디오 지도자 세미나(congresso Lideranca e Missoes AMAZONIA em FOCO), 9월 18-19일 파라과이 목회자 및 선교사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강의는 “타문화권의 교회개혁적 성장” “초창기 한국교회 및 선교사 교회개혁”이었다. 다국적이며 다양한 명강사들의 강의는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서 남미아태아 대학원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전화가 자주 오고 있다

### 5. 아태아대학원 홍보대사 역할

중남미 선교이야기 보아스 노바스(Boas Novas) 책을 남미아태아 대학원 이름으로 펴내어 최근에 가진 세계전략선교대회에 발제자로 나가 아태아 대학원을 홍보하였다. 참석한 대회 및 모임은 △2018년 6월13-16일 GMS선교전략연구소장 학술모임(소집자 심창섭 박사, 화성에서) △2018년 6월 18-21일 부산수영로교회에서 열린 KWMA(NCOWE II) △2018년 6월 25-28일 GMS 세계선교대회 등에서 각각 발제자로 발표하면서 한국인선교 시각에서

본 미래지향적인 아태아대학원 및 남미아태아대학원에 대해서 발표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김성국)과 남미복음신문(박주성) 등 매스컴에 남미아태아대학원의 활동을 기사화 하고 연재하여 기고하며 홍보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 6. 선교지에 필요한 아태아 대학원

다른 지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남미의 교회들이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2018년 9월 3-6일 알렌턴 벨렐교회 수양관에서 가진 제 5회 남미선교사 재충전 수련회(Retiro espiritual de Restaviracion para los Misioneros) 선교사 전략 포럼 신학교 사역에 참여한 신학교 운영자들의 공통된 의견에서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과목들이 선교지에 유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이 너무 이론에 치우쳐서 학문을 위한 학위중심의 신학이 되어 신학교에서 배운 과목의 많은 부분이 목회현장과 선교사역에 별로 사용해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의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사역에서 필요한 것을 발표하게 하였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서로의 필요성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종합해 보면:

- 1)경건과 전인적인 삶의 훈련의 필요성
- 2)선교지 사역에 필요한 통합적인 학문, 즉 선교지 신학교에서는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실제 목회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과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교지 신학교교육은 영적인, 학문적인, 실

천적인 교육이 피차간의 조화를 잃지 않고 온전한 수준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므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회를 할 때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하였다.

3)목회와 선교의 통합적인 훈련의 필요성 - 신학교에서 경건훈련을 받고 학문적인 지식을 얻었다면 주말에 이것을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4)선교지에 필요한 신학교 선교전략

(1)소수공동체 교육 - 제자훈련은 책을 가지고 주어진 단계를 마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몸으로 보여주듯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하며 형제애를 나누어야 좋은 일꾼을 배출할 수 있다

(2)영성을 재장비 -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영성의 핵심은 역시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 우리의 사역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더구나 신학교는 미래 교회지도자들을 양육 훈련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진을 파괴할 성령의 능력과 권세 즉,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교현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

(3)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중세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웠다. 그 결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신앙과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고백하며 성경 중심으로 가르칠 때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보다 신학과 교리를 우위에 두는 모습을 범함으로 한국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표준은 성경이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말세에 가장 큰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계1:3)이다 오직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한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성경은 최고의 표준이므로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kangsungchuel@gmail.com

## 원로칼럼

### 목회와 책(중)



**박종순 목사**  
(중신교회 원로)

한 권의 책, 나를 키운 소망의 한 권

타고난 가난 때문에 먹고사는 것도 힘들었고 학비 조달도 어려웠다. 거기다 마음대로 읽고 싶은 책을 사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필자의 책에 대한 열망을 부추긴 몇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물려받은 유산이 단 한권의 책이 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언급했지만 필자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군이었고 교회 전도사였다. 경남지방에서 부농으로 살다가 사람 잘못 만난 탓으로 다 망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필자가 세 살 때 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으로 떠나셨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쓰러져 가는 흙담집 방 한 칸에 ‘구약·신약’이라는 책 한 권뿐이었다.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가 아니라 물려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도 물려받은 그 한 권의 책을 보물단지처럼 소장하고 있다. 그 책 속엔 아버지의 신앙이 숨 쉬고 있고, 가난의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필자는 철들면서부터 책이 좋았다. 문월당 서점 점원으로 있을 때 훑고 배고프고 고생스러웠지만 책들 속에 파묻혀 나날을 보내고 책들 틈새에서 자고 깨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먹여주고 채워주는 조건으로 일했지만 어쩌다 수고했다고 돈을 주면 바로 책을 구입했다.

서가를 가득 채운 책들, 필자와 함께 50여 년을 숨 쉬며 지난 책들을 바라보고 펼 때마다 솟구치는 감회가 새롭다.

둘째는 교문사 고 한영제 장로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사고픈 책은 망고 살 돈은 없고 그래서 터득한 방법이 책방으로 찾아가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이 책 저 책을 살피고 자리에 선 채 읽는 것이다.

특히 교문사를 자주 방문했다. 두세 시간을 선 채로 책을 뒤적이고 있는 필자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한 장로님이 “박 전도사님, 필요한 책 있으면 골라 가져가세요. 그리고 책값은 돈 되는 대로 천천히 갚아도 돼요”라고 하셨다. 이 한마디가 필자에겐 기본 소식이였다. “장로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 책 저 책을 꺼내 새끼줄로 묶어 집으로 가져오곤 했다.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좋고 뿌듯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고인이 되셨지만 한 장로님의 신뢰와 배려가 너무나 크고 고맙다.

셋째는 아내의 너그러움 이해 때문이었

다. 목회자의 아내 임장이라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외롭고 고달프고 힘겹고 쌓이는 스트레스는 천근만근이고. 그러나 1960년대 목회자의 아내는 힘겨운 생활과 까지 떠안고 살아야 했다.

필자의 경우는 더 각박하고 고달팠다. 노모를 모셔야 했고 세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유유 살 돈이 없어 제때 우유를 먹이지 못했고 밥을 갈아 먹어야 했다. 그런데 아내는 불평 한 마디 없이 현실을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외상도 돈인데 한 보따리씩 책을 사들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싫은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다. 그때 시냇마을로 바가지들 굶고 사내 못 사내 양탈을 부렸다면 책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내의 한마디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을까? 그런데도 참고 또 참아준 아내가 고맙기 그지없다. 그 덕에 필자의 무모한 할부책 구입은 그칠 줄 모르고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넷째는 책을 좋아하는 필자 자신 때문이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책이었고 점원으로 들어간 곳이 서점이었던 탓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필자는 책을 좋아했다. 때 지난 신문지를 구하면 잘 모르는 한 자어가 섞여 있지만 읽고 또 읽었다. 남들이 보다 버린 헌 잡지는 구하면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글쓰기를 반복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셨던 여선생님(훗날 장로님 부인이 되셨다)은 필자에게 용기와 격려, 위로를 주셨고 신앙을 가르쳐 주셨다.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글 읽기, 글쓰기 그리고 바른말하기를 가르쳐 주셨고,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필자에게 노래 부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훌륭한 멘토를 만난 셈이다.

필자는 지금도 책을 좋아한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책들은 한권 한권 기쁜 사연들이 스며 있어서 필자가 아끼고 읽던 책을 그 누구에게도 선물하지 않는다.

이 얘길 쓰다 보니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 “K장로님, 잠깐 보고 돌려주겠다던 영어책 왜 지금까지 안 돌려줘요? 이 글을 읽거들랑 바로 보내주세요.” “L목사님, 잠깐 참고하고 가져온다면 그 책 왜 안 가져와요? 바로 가져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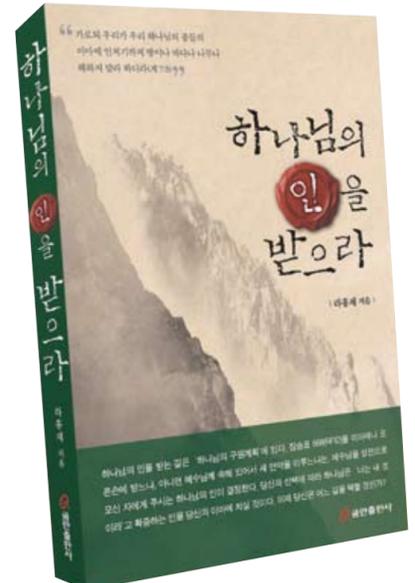
iamcspark@hanmail.net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영어로 보는 성경 (3)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 [Exodus 6:5, 6]

(5) Moreover, I have heard the groaning of the Israelites, whom the Egyptians are enslaving, and I have remembered my covenant. (6) "Therefore, say to the Israelites: 'I am the Lord,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I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s to them, and 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mighty acts of judgment.

#### WORD & IDIOM

\* moreover: 게다가, 더욱이 • groaning: 신음소리 •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총칭), 이스라엘 • the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 • enslaving: enslave(~를 노예로 만듦)의 현재분사 • covenant: 언약 • bring A out from B: B에서 A를 끌어내다. • yoke: 멍에, 굴레 • free A from B: B에서 A를 자유롭게 하다. • redeem: 구속(敍贖)하다.

#### GRAMMAR

(5) ! / have heard / the/ groaning of the Israelites, (whom the Egyptians are enslaving.) 나는 들었다 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 이집트인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S V O (whom은 the Israelites를 선행사로 하는 enslaving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다)

and / I / have remembered / my covenant. 그리고 나는 기억했다 나의 언약을 => (Moreover, 더욱이) 내가 이집트인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서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5절의 문장은 2개의 3형식 문장(S+V+O)이 대등접속사 and로 연결하여 이루어진 중문이다. 이 문장에서 have + heard(hear의 pp)는 이어지는 and I have remembered (기억했다) my covenant(나의 언약)이라는 문장과 연결하여 해석할 때 시간 순서상 앞서긴 하지만 그 영향이 주어져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동시에 끝난 것은 아니다. 아래설명 참조!

현재완료와 단순과거가 다른 점은 단순과거는 "과거에 ~ 가(를) 했다", "~ (을, 를) 잃어버렸다" 등과 같이 과거의 경험을 말할 뿐 지금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have(has) + PP의 현재완료 형태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즉 I lost my key(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라는 문장은 잃어버린 후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하지만, 현재완료형인 I have lost my key로 바꾸면 잃어버린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즉 "나는 열쇠를 잃어버려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현재완료형 문장을 해석할 때 함에 있어서 주의 할 점은 문맥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를 지금 막 했다" "~한 적이 있다" "~ 계속 하고 있다" "~해서 (그 결과) ~하다" 등의 의미를 살려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6)절 말씀은 지면관계상 다음호에 계속하기로 한다.

#### STUDY & THOUGH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 12-21절의 횃불언약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괴로움을 당한 후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최고도에 달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의미는 "I have remembered my covenant" 라는 문장에서 나타나듯이 과거에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해 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맺은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시킬 때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언약의 주체이시며 주도권을 가지시고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분명한 이유이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of you"(Luke 22:20).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장로를 존중하라(딤후5:16-19)찬268장

교회의 장로직은 건물의 기둥과 같습니다. 주님은 장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로직책의 우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로는 경건의 본이 되고 지교회회를 형성하는 기본입니다. 장로의 권위를 경시하는 우리 시대에 성경적 장로가 세워지도록 목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목사에게 배나 존경을 더해야 합니다(17). 그중 목사는 가르치고 치리하는 이중사명을 받은 장로입니다. 교회는 목

사의 가르침과 설교에 따라 생사가 좌우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설교에 뿌리를 내려 세우심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해 감사가 넘치는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골2:6-7). 셋째, 장로는 범죄자에 대한 두려움과 꾸짖음으로 성결을 구해야 합니다(19). 특히 장로에 대한 비난을 엄히 문책해 주님의 교훈의 존귀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 화 목사가 할 일(딤후5:21-22)찬331장

또다시 사도는 교회에서 행할 목사의 할 일을 강조합니다. 첫째, 모든 일에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21). 공평은 의에 포함된 중요 요소입니다. 사람 앞에 의를 보이게 좋아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 경솔한 안수를 금해야 합니다(22). 성령의 기름부음의 상징인 안수행위는 목사가 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빙자해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

함은 성령을 훼방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의 영적권위가 존중되도록 그 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정결을 힘쓸 것입니다(22). 무엇보다 사도는 교회의 다른 이들을 권하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경건에 힘쓰기를 강조했습니다. 목사의 경건은 교회의 경건과 그 시대의 경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수 목사의 일반은총 이해(딤후5:23-25)찬284장

점점 고령화돼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사도의 일반은총에 대한 바른 이해가 더욱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일반은총이란 일 반계시인 자연물, 인간양심, 사회의 여론과 관계를 가집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음으로 이것을 무시함은 어리악이 신앙입니다. 도리어 이 일반은총의 무대를 바로 이해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약을 적절히 이

용하되 그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23). 은퇴 후 고독과 권태와 허무를 이기기 위해 더욱 건강을 위해 필요한 혜택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금식이 필요하나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셋째,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갑시다.

### 목 경건한 종의 길(딤후6:1-2)찬288장

경건한 목사는 교회를 경건한 교인들로 훈련 시키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기 상전을 주님처럼 섬겨야 합니다(1). 가정생활의 부부관계는 사회생활의 주종관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약백성의 사랑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나라로 이끌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의 존귀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1). 섬기는 자의 겸손과

복종의 태도가 이 땅에 그의 영광을 들어내고 그의 교훈의 복음을 알려 그리로 끌려오게 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상전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2). 종이 상전의 유익을 구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관계로 언약의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건한 종의 길이 복되고 능력입니다. 이 길을 걸읍시다.

### 금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딤후6:3-6)찬289장

사도는 모든 관계를 말씀에 맞추므로 교회로 말씀순종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무엇을 반대해야 합니까? 첫째, 다른 교훈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교훈은 모두 거짓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둔 인생은 타락하고 사망에 떨어지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오직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둘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

하고 분쟁과 비방을 잘해 악한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상실하면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족함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 토 목사가 주의할 것(딤후6:7-10)찬293장

목사가 항상 경계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목사는 현실의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7-8). 과거에 끌려 만족하려는 것은 교만을 만들고, 미래에 헛된 욕심으로 만족하려는 자는 헛된 탐욕과 헛된 자랑에 빠지나, 현재라는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나가는 자는 어리악이처럼 평안과 만족을 가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둘

째, 부하리함을 금해야 합니다(9). 사도가 디모데에게 돈 사랑을 금함은 그것이 온갖 죄악과 결탁돼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사는 절대빈곤의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10). 사도의 교훈대로 인생은 밀천이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마5:3). 자아부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목사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을 누리고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티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양육, 종교행위: (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k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예배: 새벽 6: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8:00 대외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양, 위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8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리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422-0288, Fax: (215)42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목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리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1 ■ N.Y.: Tel: (718)886-4 Fax: (718)886-01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



# 드라마 구약(1)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어 성경이 읽어지네?” 생터성경사역원(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사역원, 대표 이애실 사모) LA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덕수 목사는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경을 쉽게 읽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생장점을 터트리고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통과하고 읽어간다면 그 어느 책보다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인 구원이 담겨있다고 김덕수 목사는 강조한다.

김덕수 목사가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구성된 성경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성경을 통독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게재한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늘 들었고, 또 읽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쉽게 잘 읽혀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목록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목록은 총 39권이 있다. 그런데 이 39권을 크게 셋으로 구분해 나눠놓았다. 먼저는 역사서라는 커다란 한 덩어리다. 창세기, 출애굽기-에스더까지가 역사서다. 역사서 뒤에는 시가서라는 장르의 책들을 모아 놓았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다. 시가서 다음에는 예언서들을 모아 놓았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다.

이렇게 배치되어있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목록을 시간순서, 즉 역사순서대로 재배치해 구약에 흘러가는 드라마틱한 하나님나라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한다. 연속극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야기가 흘러가고,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연속극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다. 창세기는 우리의 기원부터 이야기해주고 계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아담은 통치권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받은 통치

## 창세기-우리의 기원-대리통치권-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 홍수사건-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한 하나님나라 백성의 길

권은 대리통치권이였다.

아담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만 아담이 인정하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아담이 늘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였다. 그 선악과나무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알람장치였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자유의지’를 발휘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맛ाय.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라고 고백했어야 한다. 그것을 고백하는 방법은 안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 사건, 즉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했던 사건 이후, 인류는 두 계열로 나뉘진다. 자기가 가진 힘과 폭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는 가인계열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예배공동체인 셋 계열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셋 공동체’를 타고 흘러간다. 그것을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족보의 끝은 노아다. 셋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셋 공동체가 가인 공동체와 섞였다.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다. 그래서 일어난 심판이 홍수사건이다.

홍수사건 이후 노아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셋 계열’인 생명공동체로 남아있어야 했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족보를 들여다보니까 또 ‘가인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한다. 바로 ‘니므롯’이다.

(창10:9-10)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 되었으며”

니므롯이 그의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자기가 다스리고, 자신이 왕인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

것을 약속하신다.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영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내가 너로”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 내실 것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 이유는 그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인 생명을 얻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어내시는 이야기이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콜림하셨을 때, 행선지도 모른 채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였다.

이삭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였다. 원래 자신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죽게 하셨다.

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한다.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가인계열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흘러가는 인류의 일 반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인류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가인계열의 길로 가더라 말이다.

이런 인류의 일반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가인계열 사람들을 생명공동체인 셋 계열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다. 그 방법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시작된다.

(창12: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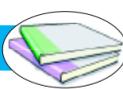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법을 주실

그리고 야곱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사건들과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사건과 인물들이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난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 출애굽기가 시작된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성경에는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관심하셨던 기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으셔서 430년 후에 정령만 603,550명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국가급의 인구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 국민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다.

### 책 소개



## “카무카무 무에”

저자 은희곤 목사

은희곤 목사(뉴욕침사랑교회)의 신앙에세이 “카무카무 무에”가 최근 출판됐다. 이 책은 필자가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에 지난 5년간 게재했던 “시론”을 모아 정리한



하나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

것이다.

저자가 소속된 미연합감리교회 감독인 정희수 목사는 추천의 말을 통해 이 책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변화와 기적, 감탄 속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답론”이라고 표현했다. 정 감독은 기적의 현장이라고 표현한 이민교회 목회 현장에서 문화적 전령, 선교적 전령이 되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더욱 체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감신대 왕대일 교수는 “시대가 알고 있는 온갖 부정에 대한 담금질을 목양의 언어로 강하게 토해냈다”고 말했다고 기감미주자치연회 김영민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의 지혜”라며 추천했다.

필자는 “인생의 주어가 뒤바뀐 대전환의 역사, 기억하고 또 확대증폭하고 싶어” 이 책을 출간했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책 제목 “카무카무 무에”는 우간다 말로 “하나하나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는 의미로 혼자자 아니라 주변의 만남 속에 한 마음으로 일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책은 제1부 네가 어디 있느냐? 주제아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 등 7편, 제2부 그 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크라테오!” 주제아래 “이 가을, 잃어버린 꿈을 꾸리라!” 등 14편, 제3부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제아래 “하나님 눈에 띄게” 등 14편, 제4부 감사와 행복이 꽃피는 삶 주제아래 “감사,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해줄 키워드” 등 11편, 제5부 하나님나라가 모여 다발을 이룬다 주제아래 “아름다운 비행” 등 18편으로 총 54편의 글을 실었다.

저자 은희곤 목사는 감신, 연세대연합심대원, 감신박사원을 졸업했다. 목회사역은 1982년 김포동산교회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뉴욕침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감 미주자치연회 감독으로 취임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e@midwest.edu